3일 Market Index

코스피	2501.40 (-22.99)	코스닥	843.18 (-12.43)
금리(국고채 3년)	3.281 (-0.054)	환율(원·달러)	1338.20 (-3.90)

metro 경제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6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5월 4일 목요일

상습체불 근절대책
임금체불 사업주
돈줄 막는다
02

진격의 K배터리, 핵심소재 직접생산 등 공급망 다각화

美 IRA 대응, 이차전지 경쟁력 위해 핵심 원료소재 안정적 확보 총력전

포스코홀딩스, 인니 니켈공장 추진 국내기업 최초 원료산지서 직접생산

SK온, 美 기업과 음극재 개발 협력 자사 배터리 특화 고성능 소재 연구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과 이차전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다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음극재는 특정 국가 의존도가 매우 높아 공급망 다각화에서 빠지지 않고 있다.

니켈·리튬 등은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과 용량을 결정하는 핵심 원료 안정적인 수요 확보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소재로 꼽혀 기업들이 소재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포스코홀딩스는 리튬·니켈·흑연 등 2차 전지 소재 원료부터 전구체와 양극재·음극재·차세대 배터리 소재까지 생산, 공급하는 밸류 체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온은 미국 광물개발 기업들과 손잡고 음극재 개발 협력에 나섰으며, LG에너지솔루션은 리튬 공급망 다변화에 투자 중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는 이차전지 소재의 핵심 원료인 니켈을 해외에서 직접 생산한다.

포스코홀딩스는 세계 1위의 니켈 보유·생산국인 인도네시아 할마헤라 섬의 웨다베이 공단에 2025년부터 상업생산을 목표로 4억 4100만달러(5900억 원)을 투자해 니켈제련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니켈을 해외 원료 산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은 국내 기업 중엔 처음이다. 연간 5만2000톤(니켈 함유량 기준) 수준의 니켈 중간재(니켈매트)를 생산한다. 전기차 100만대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과 용량을 결정하는 핵심 원료다. 전기차 시장 급성장에 따라 니켈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 생산 전 밸류체인에 걸친 산업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 및 산업공단 인프라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국내에서 고순도 니켈을 생산하는 연산 2만톤 규모의 이차전지용 고순도 니켈공장을 광양에 건설 중이다. 원료인 니켈 광석은 뉴칼레도니아 원료법인 NMC에서 공급받는다. 지난 2021년에는 호주 니켈 광산·제련 업체인 레이븐소프 지분 30%를 인수, 호주산 니켈 공급망을 확보했다. 포스코홀딩스는 현재 아르헨티나와 호주에서 리튬을, 뉴칼레도니아·호주·인도네시아에선 니켈을 조달해 양극재와 음극재를 생산하고 있다.

SK온은 미국 내 광물개발 기업들과 연이어 음극재 개발 협력에 나섰다. SK온은 이날 웨스트워터 리소스(웨스트워터)와 배터리(이차전지) 음극재 공동 개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SK온 배터리에 특화된 친환경 고성능 음극재를 연구·개발할 예정이다. 웨스트워터에서 정제한 흑연으로 만든 음극재를 SK온이 개발 중인 배터리에 적용하고, 그 성능을 함께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협업 기간은 3년이다.

SK온은 개발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웨스트워터로부터 음극재를 공급받아 미국 내 SK온 배터리 공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면에 계속〉

/양성운·허정윤 기자 ysw@metroseoul.co.kr

배터리 원료 및 소재 샘플과 원통형 배터리 사진 (왼쪽부터) 리튬, 원통형 배터리, 니켈, 양극재, 코발트

미래세대에 전하는 탄소중립 전략보고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회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으로부터 전달받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를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美 제재 반사이익… '자급자족' 中 반도체 장비업체 때아닌 호황

차이나 뉴스&리포트

수입 의존 수요 모두 자국으로 집중
AMC 리서치 상하이 매출 2배 급증
NSIG도 주문밀려 작년 매출 46%↑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호황으로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입에 의존했던 수요가 모두 국내로 몰리면서 반도체 장비업체들의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고, 투자도 붐을 이루고 있어서다.

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들은 미국 공급업체들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떠난 빈자리를 메우면서 최근 매출과 이익이 급증했다.

최근 중국의 주요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의 매출과 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토이미지

ACM 리서치 상하이는 작년 매출이 29억위안(원화 약 5600억원)으로 지난 2021년 16억위안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회사는 미국 AMC리서치의 중국 자회사로 반도체 웨이퍼 세척 및 전기도금, 패키징 장비를 생산한다. 연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순이익은 6억 8900만위안으로 전년 대비 254%나 늘었다.

중국 내 최대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인 NSIG는 주문이 밀려들면서 작년 매출이 36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46% 늘었다.

테크인사이트 스라반 쿤도잘라 반도체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제재는 오히려 중국이 반도체 기술에 대한 자립 목표를 가지도록 했고, 중국 반도체 장비 업체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지적했다.

북창화창의 작년 매출은 147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51.7% 늘었고, AMEC 역시 작년 매출이 47억위안으로 52.5% 증가했다.

미국은 작년 10월 첨단 반도체와 고성능 반도체를 제조하는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사실상 수출 금지 조치로 일본과 네덜란드에도 규제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SCMP는 "미국의 제재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자국 파운드리 업체들의 수요가 부합해 관련 산업을 키울 수 있는 드문 기회를 가져왔다"며 "광동성 남부에서만 5000억위안 이상의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등 기술자급을 위한 투자도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들로 자국 수요의 최대 70%까지 조달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전히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한계다.

스라반 쿤도잘라 수석연구원은 "중국 반도체 장비업체들은 소재와 핵심장비, 특정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외국 기술로 제품을 만든다"며 "스스로 그 의존성을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ASML과 미국 KLA, 일본의 니콘, 캐논 등이 만드는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대체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버스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이재명 "기득권 늪에 빠진 정치… 국민 혐오·불신 부추겨" /사진 뉴시스

▲ 檢 송영길 前보좌관 등 줄소환… "돈봉투 몰라"

▲ 김진표, 박광온에 "지지자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 전체 봐야"

▲ 권영세 "북한 변하지 않는데 우리만 정권따라 대북정책 바뀌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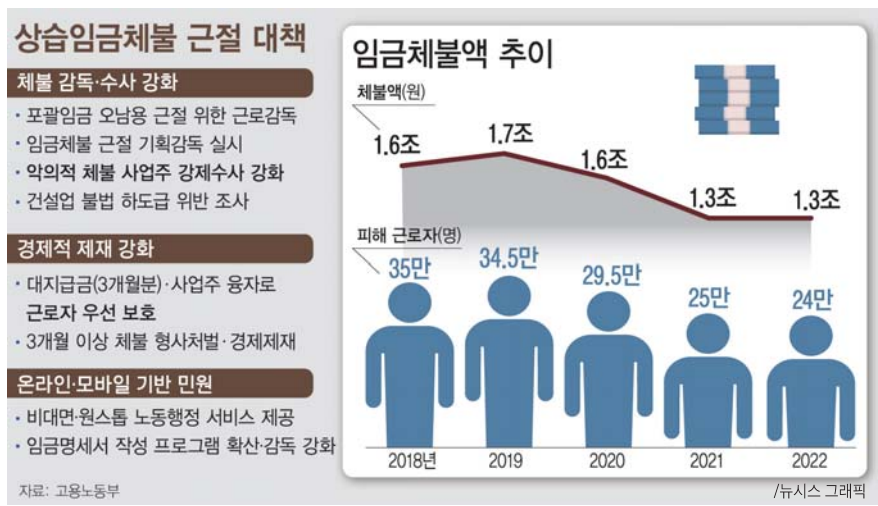
▲ 전현희 "감사원, 정치적·직권남용 감사 말고 올바르게 다시 거듭나길" /사진 뉴시스

▲ 친윤, 쓴소리에 귀 여나… 국민공감에 野원로 유인태 초청

임금 3개월 체불 사업주 '돈줄' 막는다… 구속 등 강제수사도

당정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
매년 임금체불 1.3조 이상 지속돼
근로자 24만명, 가족들 '생계위협'

총액 3000만원 사업주 '상습체불'
신용제재·정부지원 제한 등 나서
재산은닉·출석거부땐 '강제수사'



/뉴시스 그래픽

정부가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주지 않거나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에 대해선 청산의지가 없는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로 판단, 대출 등에 영향을 주는 신용제재와 정부 지원사업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여당은 3일 당정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은 매년 1조 3000억원 이상이 지속되면서 약 24만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 전체 체불액 중 80%에 달해 체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는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상습체불로 보고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가 추가된다. 또, 대지급금의 낮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체 임금 체불액의 60%에 해당하는 8000억원, 약 7600개소 중 청산의지가 없는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가 경제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사업이나 보조가 제한되고, 공공 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을 1년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임금체불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영향을 주는 신용제재도 받게 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재산은닉, 출석거부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체포영장 신청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로 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면서 "대표적인 취약업종인 건설업에서 발생한 체불 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 여부를 필수 조사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추가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사업주의 적극적인 체불청산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융자도 대폭 확대한다. 매출감소 등 까다로운 융자조건을 없애고 지급한도를 상향하며 상환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상습체불 요건에 해당돼도 융자를 받는 등 청산의지가 있는 경우 제재를 면제해 일시적 경영난 등 불가피한 어려움에 대해 감안한다는 의미다.

또 고용부가 제공하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도 기능을 대폭 개선, 사업주가 출퇴근시간을 입력하면 근로시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이 자동 계산되고, 근로자는 임금이 제대로 계산·지급됐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공짜야근 등 근절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앞서 청년층에서 제기되는 공짜야근, 포괄임금 오남용, 육아휴직 사용 방해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6일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87개소와 장시간근로 800개소 감독계획을 발표했고, 17일엔 모성보호 근로감독 및 신고센터 운영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6월 중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라며 "이번 대책이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체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속 입법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친환경차·조선 등 기업 53곳 3년간 1.4조 '탄소중립' 실천

산업부, 탄소중립 융자사업 마감
융자·이차보전 등 총 7585억 신청
올 융자사업 지원경쟁률 13.5대1

친환경 자동차와 자원순환 분야 등 53개 기업이 3년간 총 1조 3866억원 규모의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자원순환을 비롯해 친환경 자동차, 이차전지, 차세대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저장, 조선 등 다양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이하 융자사업) 신청접수를 지난달 28일 마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53개 기업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1조 3866억원 규모의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융자 7303억원, 이차보전(조달금리와 대출금리 차액 보전) 282억원 지원을 신청했다.

탄소중립 전환 프로젝트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미래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장기·대규모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 프로젝트를 말한다.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050년 산업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올해 융자사업의 지원 경쟁률은 신청금액 기준으로 융자는 13.5대 1, 이차보전은 3.5대 1로 나타나, 융자지원만 공모했던 전년도 경쟁률(4.9대 1)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번에 신청한 기업의 탄소중립 시설과 연구개발 투자계획을 보면, 우리 산업계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다양한 선도프로젝트 분야에 지속적인 탄소중립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유형별로는 중소·중견기업 참여 비율은 86.8%(46개사), 투자 규모는 69.5%(9656억원)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중견기업의 전년 대비 참여수는 2배, 투자 규모는 5배 증가했다.

탄소 저감 프로젝트 유형별로는 자원순환과 건물(기타) 분야 신청수요가 각 5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친환경 자동차, 이차전지, 제로에너지건물 분야가 각 4건, 이산화탄소 포집,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 각 3건, 철강, 석유화학, 차세대 태양광 및 풍력, 정유, 에너지 저장, 자동차, 조선 분야가 각 2건 등 다양한 분야 프로젝트가 접수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美 은행권 불안, 한미 금리차 우려… 원·달러 환율 연고점

올해 들어 첫 1340원대 돌파
위험 회피, 안전자산 선호 뚜렷
일각선 상단 1350원대 전망도

코스피가 전 거래일(2524.39)보다 22.99포인트(0.91%) 내린 2501.40에,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55.61)보다 12.43포인트(1.45%) 하락한 843.18에 거래를 종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42.1원)보다 3.9원 낮아진 1338.2원에 마감했다. 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미국 은행권 불안감이 다시 재점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돌파했다. 위험 회피 심리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진 셈이다.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결정이 향후 환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42원10전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1340원대로 마감한 것은 지난해 11월 28일(1340원20전) 후 처음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23일(1351원80전) 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른 이유는 미국 은행권 위기가 재차 불거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뱅크런(대량 예금인출)에 휘말렸던 퍼스트리퍼블릭이 파산 수순을 밟고 있어서다.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고액 예금 비율이 65%가 넘어 실리콘밸리은행 이후 가장 먼저 붕괴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고, 예금자들은 잇달아 돈을 빼기 시작해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퍼스트리퍼블릭은 1분기 말 기준 예금 잔액이 1045억달러로 전 분기(1766억달러)보다 약 41% 줄었다. 전문가 예상치인 1450억달러를 크게 하회하면서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이 빠져나갔다.

결국 JP모건체이스가 퍼스트리퍼블릭의 모든 예금과 자산을 인수하면서 위기는 다소 완화된 상태다.

또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약해진 탓에 부정적이 시각이 늘어났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23년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2% 감소한 496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4월 수입액은 522억3000만달러로 작년 동월보다 13.3% 감소했다. 4월 무역수지는 26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17개월 연속으로 무역적자가 난 이후로 가장 긴 연속 무역적자다.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 속에 한미 금리차가 더 벌어질 위기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한국시각으로 4일 새벽 3시 FOMC를 열어 정책금리 인상 폭을 발표한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0.25%p 올리면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1.75%p가 된다.

한미 기준금리가 1.50%p를 넘었던 적은 역대 단 한 번도 없었다.

금리차가 더 벌어지게 될 경우 높은 금리를 쫓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은 물론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벌어지게 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미 금리차가 계속 높아지는 것에 따른 압력이 외환시장에 계속 존재하고 있다"며 "원화가치 하락 압력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환율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한국 경기의 펀더멘털이 취약하다고 하지만 글로벌 전반적으로 미 달러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원화가 이를 상쇄할 만큼 동반 약세를 시현하고 있는 점은 부담스럽다"며 "상단은 1350원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최근 원화 약세에 원인에 대해 달러 강세요인이 크다고 분석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원화 약세요인보다 미국 달러화 강세요인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尹 대통령 국빈방미 후속대응

정부·단체·기업, 경제성과 이행 민관 TF 발족

산업부 주재 1차 회의 개최
MOU 등 방미성과 점검·이행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경제성과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빈방문 경제성과를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관계부처 및 기업들과 함께 '미국 정상순방 경제성과 이행 민관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TF 발족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국빈방문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취해 줄 것을 당부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진행됐으며, 중기부·복지부·문체부·특허청 등 관계부처 외에도 MOU를 체결한 50여개 기업과 기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시스

지난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통해 한미 관계는 기존 안보 동맹에서 산업·과학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 동맹으로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가 IRA(인플레이션감축법)와 반도체과학법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부담과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로 합의, 추후 IRA 잔여 쟁점과 반도체과학법 후속 협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산업부와 관계부처가 59억달러 투자유치, 50건의 MOU 등 방미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미국 정상순방 경제성과 이행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투자유치 ▲MOU 성과 ▲청년인재교류 등 3개 분과를 두고 각 분과는 후속조치 이행 및 점검, 이행 애로 해결, 추가성과 발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민관 TF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각 분과별 책임기관을 지정했으며, MOU 분과에서는 50건의 MOU 체결 기업·기관들이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전례 없이 풍성한 경제성과가 있었던 금번 정상순방 성과 이행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하고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관TF를 발족했다"며 "투자유치, MOU 성과, 인재교류 등 각 분야 성과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는 민관TF를 통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신속 해소할 것이며, 성과 구체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중기부, 'K-바이오 랩허브' 2700억 투입

중소벤처기업부가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을 계기로 인천 송도에 'K-바이오 랩허브'를 2025년까지 완성한다.

이는 미국 보스턴 혁신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송도 4만㎡ 공간에 들어설 K-바이오 랩허브는 총 2700억원을 들여 의약·바이오 분야 창업기업들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후보물질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K-바이오 랩허브의 벤치마킹 대상인 '보스턴-캠브리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1 스퀘어마일(2.59㎢)'로 불리는 세계 최고의 혁신 클러스터로 꼽힌다. COVID-19 mRNA 백신을 개발한 모더나, 로봇개로 유명한 보스턴 다이나믹스 등 글로벌 혁신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대통령 순방에 동행한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보스턴에서 열린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해 미국측 관계자들과 한미 클러스터 혁신전략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모더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최고경영자(CEO), 미국 시총 1위(약 590조원) 바이오제약사인 존슨앤존슨 부회장, 3대 컨설팅 회사 중 하나인 매킨지와 베인캐피탈의 파트너, 보스턴 생태계 진출에 성공한 제노스코의 고종성 대표 등 11명의 한미 클러스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 클러스터의 성공요인과 한·미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와 별도로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다쏘시스템과 협력해 AI, 바이오 등 보스턴 클러스터와 관련도가 높은 분야의 한국 스타트업 14개사가 미국의 기술·마케팅 전문가 및 노무·특허·투자 전문가 등과 만나 현지 진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중기부는 UL Solutions와 신산업 분야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실증사업 추진 등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이와 연계한 순방 후속조치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이 세워졌다"면서 "이를 토대로 중소벤처분야에서도 더욱 견고한 양국 협력이 이뤄지고, 이는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 1면 '진격의 K배터리…'서 계속

유럽 등 글로벌 공략 활발
LG엔솔, 아프리카 진출

모로코서 수산화리튬 생산 MOU

웨스트워터는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1만7000헥타르(ha)에 이르는 쿠사 흑연 매장 지대의 탐사·채굴권을 갖고 있다. 현재 광산 근처에 2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흑연 정제 공장을 짓고 있다.

해당 공장은 연산 7500톤 규모로 올해 말 시험 운전을 거쳐 2024년 상반기부터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음극재는 양극재·분리막·전해질과 함께 리튬이온 배터리를 구성하는 4대 요소로 배터리의 수명, 충전 속도 등을 좌우한다. 현재 원 소재로는 주로 흑연이 쓰이고 있다. 음극재는 특정 국가 의존도가 매우 높아 배터리 기업들은 공급망 다각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해 하반기에 발간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음극재 생산의 8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는 지난달 5일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해 중국 리튬 화합물 제조 업체 야화와 아프리카 모로코에서의 수산화리튬 생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모로코는 미국,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IRA와 핵심원자재법(CRMA) 등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LG에너지솔루션은 리튬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독일 벌칸 에너지와 5년간 수산화리튬 4만5000톤 공급 ▲호주 라이온타운과 5년간 수산화리튬 원재료 리튬 정광 70만 톤 확보 ▲칠레 SQM과 9년간 수산화·탄산리튬 5만5000톤 공급 등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성운·허정윤기자

“아시아 재도약 위해선 보편가치 ‘공유·긴밀 공조’ 필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개회사
기후기술허브 설립 합의 MOU
국가 간 회복·연대·개혁 강조

경제 불확실성 극복해 나가고
생산방식 등 소비행태 바꿔야
고령화 등 대응엔 새로운 접근법 必

경험·노하우 바탕 ADB 활동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개회식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아시아의 회복을 돕는 열쇠는 바로 자유, 개방, 연대의 보편적 가치의 공유와 긴밀한 국가 간 공조에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기후기술허브(K-Hub)를 설립하고, 글로벌 저성장 기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ADB는 빈곤감축과 인프라 구축 등 전통적인 역할 외에도 팬데믹, 기후변화, 저성장 등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며 “ADB도 국제사회의 달라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변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DB는 빈곤, 기후변화, 도시화, 노령화, 불평등 확대 등의 개발문제 해소를 위한 2030 중장기 전략(Strategy2030)을 발표했다. 아시아지역의 풍요롭고(Prosperous) 포용적(Inclusive)이며 복원력(Resilient)있고 지속가능한(Sustainable)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목표로 한다.

이날 추 부총리는 아사카와 마사츠쿠 ADB 총재와 면담을 갖고 기후기술허브(K-hub) 설립에 합의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공공·민간 기후전문가를 선별·연결해 ADB 기후분야 사업시 네트워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추 부총리는 아시아가 재도약 하기 위해선 각 국가 간 ▲회복 ▲연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세계 경제의 분절화(구조적차이에 따른 조달비용 격차)와 지정학적 불안이 장기화 되고, 주요국의 강도높은 통화긴축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다”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해 글로벌 저성장 기조로부터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회복을 위해선 자유, 개방, 연대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국가간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무역의 규칙을 다시 한 번 세워야 한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건연대, 디지털 심화 , 기후협력 등의 분야에 있어서 국제기구, 국가간 협의체널, 고위급 대화 등 다층적인 협력구조를 공고히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추 부총리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방식과 소비행태를 바꿔야 하고, 디지털심화, 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어떤 강대국이나 유능한 집단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ADB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금리인하 논의 시기상조… 데이터 따라 추가 인상 가능성 배제 못해”

이창용 한은총재 인터뷰
美 금융불안, 韓 우려할 수준 아니야
원화절하 상황 개선될 것 기대도
원화 약세보다 美 달러 강세요인 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일 인천 송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DB 연차총회 거버너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의 퍼스트리퍼블릭은행 파산과 관련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원·달러 환율이 1340원대까지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원화자체의 약세요인이 아니라 미국 달러화의 강세요인 때문”이라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한·미 통화스왑 필요성을 일축했다.

이 총재는 3일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에 앞서 CNBC와 인터뷰를 갖고 미국의 금융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한 후 JP모건이 인수키로 했다. 실리콘밸리은행에 이어 퍼스트리퍼블릭은행도 빠르게 인수되며 금융시장 불안을 일부 해소했지만, 시장에서는 추가 은행 위기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총재는 “미국과 한국의 시장구조가 다르다”며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을 보면 장기채권에서 손실이 발생했는데, 우리나라는 만기구조가 훨씬 짧고 대출도 변동금리가 많다”고 했다.

이 총재는 한국의 시장구조도 단점이 존재하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변동금리는) 리스크를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입장에서는 역풍이 거세질 수 있다”며 “연체율이나 상환금 증가 등 부동산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총재는 지난 2월부터 두 차례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으로 ‘누적된 기준금리의 효과를 지표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화정책 변동(인하)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약 1년 반 동안 금리를 300bp(1bp=0.01%포인트) 올렸고, 인상의 누적된 영향을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데이터에 따라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근원물가는 여전히 목표보다 높고, 소비자물가지수도 하락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목표치(2%대)보다 높기 상태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며 “금리 인하를 이야기 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고 했다.

원·달러 환율이 1340원대로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원화 약세요인보다 미국 달러화 강세요인이 크다”며 “하루하루의 통화변동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총재는 “4월은 통상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많은 달”이라며 “4월 이후에는 원화 절하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4일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원화가 절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 긴축사이클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예전만큼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환율 압박은 작년보다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尹 “국가 간 견고한 협력·연대로 새로운 모델 만들어 나가길 기대”

윤석열 대통령 축사
포용·신뢰·호혜 3대 협력원칙으로
인-태 지역 경제 개발 협력 적극 기여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개별 국가를 넘어 국가 간 견고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며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원칙’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개발 협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56차 ADB 연차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회원국과 국제기구 대표단을 환영하며 축사를 했다.

ADB 연차총회 한국 개최는 1970년 서울, 2004년 제주 이후 세 번째로, 이번 연차총회는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총회가 열리는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가 1968년 ADB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라며 한국과 ADB의 인연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지정학적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보호주의 확산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은 새로운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확대되고 있는 국가 간, 지역 간, 계층 간 디지털 격차의 해소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새로운 도전”이라며 “이러한 도전은 개별 국가를 넘어 국가 간에 견고한 연대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 지역은 풍부한 광물자원, 뛰어난 생산 제조 역량, 첨단 기술,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국가들로 구성돼 있어 역내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러한 도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ADB 회원국들이 중심이 돼 각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도 ADB와 함께 적극 동참하고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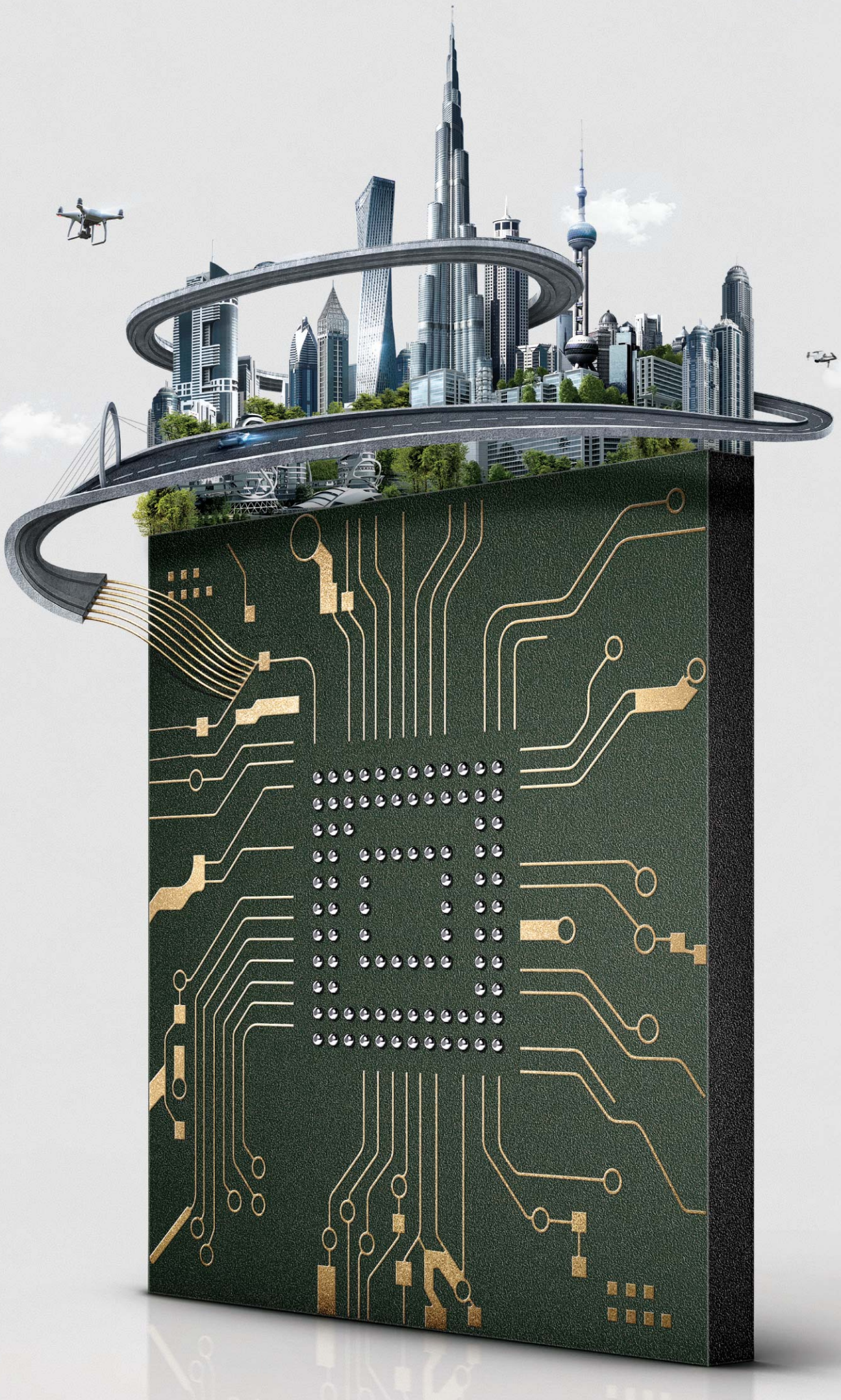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다시 한번 설명하며 인-태 지역의 경제 개발 협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핵심 파트너로서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적극 참여하겠다”며 “역내 회원국들의 공동 번영을 위해 한국 경제의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와 같은 분야에서 적극적인 기여외교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ADB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후기술허브’를 각국 정부, 민간기업이 기술, 지식,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제시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반도체 안에 길이 있다

데이터가 세상으로 뻗어가는 길
새로운 ICT의 내일이 열리는 길
당신과 세계를 연결하는 길

우리는 반도체 안에서
미래의 새로운 길을 찾아갑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hynix

與野 '전세 특별법' 합의 불발… 채권매입 방안 등 입장 차

국토위 피해지원 특별법 3건 논의
與 "정부가 사기 채권매입 불가"
野 "피해자 요건 지나치게 엄격"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인정 기준과 지원 범위, '임대보증 채권 매입' 방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가 제출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법 3건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는 지난 1일에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 정부여당안)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3건을 논의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을 완화하면서 합의 시도에 나섰다. 당초 정부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판단될 때 ▲다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을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으로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 피해자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대항력·확정일자 요건 모두 충족 못해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임대인의 파산 및 회생절차, 경·공매 절차 개시로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 발생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 경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조정에 따라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인정) ▲'수사 개시', 임대인 등 기망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을 추가 완화한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협소하다. 명백한 사기로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는 구제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3일 오후까지 열린 법안심사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 맹성규 의원은 "보다 폭넓고 깊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보증 채권 매입 방안에 있어서도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법안심사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인천 미추홀구는 전세 보증금 기준은 대부분 우선변제 기준이 8500만원인데 보증금이 8600만원이거나 9000만원이면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도 회의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깡통 전세도 사기성이 인정되면 전세 피해로 보는데, 어떻게 사기로 볼 건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미추홀구, 빌라왕 사례가 다 다르다"며 "상업용 빌라 사기 사건은 주택이 아니라 피해자가 아닐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은 정부가 사기당한 채권 매입은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대신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로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공론조사… 6일·13일 숙의토론

시민 500명 참여… 생방송 공개
"선거제도 설계 중요한 역할 할 것"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대 총선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500인 시민참여단 공론화 실시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박태홍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오는 6일과 13일 22대 총선 선거제 개편을 위해 500인의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토론 과정을 거친다고 밝혔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조사에 기대가 큰 것을 알고 있다"며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선거제 개선 논의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론조사에서 ▲선거제도 개편의 원칙과 목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크기(소선거구·중선거구·대선거구·도농복합형선거구)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선출단위·의석배분방식·명부 작성방식)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과 의원정수를 의제로 토의한다.

이번 공론조사는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비례배분하여 모집한 500명의 시민참여단이 본인의 거주지역과 인접한 KBS본사(251명)와 4개 지역총국(대전 67명, 대구 48명, 광주 57명, 부산 77명)에 모여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민참여단은 사전에 자료집과 영상자료 제공받아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학습한 뒤 토론에 참석한다. 시민참여단은 이틀동안 발제와 토론 등 패널토의 4회, 전문가 질의응답 6회, 분임토의 5회로 구성된 공론조사를 거친다.

전문가 발제자·토론자는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범섭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12인의 국내 선거 제도 전문가 참여한다.

의제에 대한 시민참여단 조사는 ▲시민참여단 모집 직후 ▲1일차 숙의토론 시작 직전 ▲숙의토론 종류 후에 총 3차례 이뤄진다. 주요 조사결과는 오는 13일 폐막식에서 즉시 발표하고, 사전에 실시한 5000명 여론조사를 포함한 모든 조사 결과는 정개특위가 별도로 발표한다.

정개특위가 정치학자·법학자 등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가 조사 역시 사업 수행업체를 선정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고 5월 중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공론조사 과정은 일부가 공영방송사인 KBS를 통해 생중계된다. 정개특위는 지난 4월 13일 한국리서치,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한국방송공사(KBS)가 협력사로 꾸려진 컨소시엄을 공론화 사업 수행업체로 선정한 바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이재명 "SG증권 조작세력 지위고하 막론 엄중 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3일 외국계 증권사인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에서 쏟아진 대량 매물로 9개 종목이 일제히 폭락한 사태를 언급하면서 "작전 세력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발본색원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SG증권 사태의 파장이 금융 시장을 뒤흔들었다. 시가 총액 8조원을 증발 시킨 사태로 개미 투자자가 입을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식시장 신뢰도와 건정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금융당국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나"라며 "이미 지난 4월 초에 관련 제보가 금융위원회에 전달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부가 대책 없이 이를 뭉개면서 작전 세력들이 물량을 처분할 시간만 벌어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신속한 수사와 함께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대처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차액결제 같은 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하면서 "민주당은 주가조작 범죄의 원천봉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표는 오는 7~8일 일본 기시다 후미로 총리의 방한에 대해 "한일 정상회담 만큼은 굴욕으로 점철된 지난 정상회담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양국 정상이 잘못된 강제동원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과거사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직접 우리 국민과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죄해야 마땅하다"하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김재원·태영호' 책임론 부상

신진·중진 엄중 대응 목소리

설화(舌禍)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한 '책임론'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여기에 태영호 최고위원은 최근 '공천 녹취록' 파동에 '후원금 쪼개기' 의혹까지 휘말리면서 책임론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3일 '공천 녹취록'과 관련 "지금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나 태 최고위원 입장 자체는 '그런 말을 한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동일하다는 의견이며, 사실은 확인된 것 같다"면서도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이 국민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태 의원이 별도로 사과를 더 하든 정치적 책임을 지든 이러한 일에 대해 조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속되는 지도부 리스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고위 선출시 비겁하게 다선들은 숨고 초선, 0선, 신인들의 잔치가 되다 보니 정치 역량이 일천한 사람들만 지도부 구성이 됐다. 출발부터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었으나 위기가 너무 일찍 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 윤리위는 지난 1일 잇따른 설화에 대해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최영훈 기자

'돈 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탈당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3일 탈당 의사를 밝혔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를 만나 탈당 의사를 전달했다.

윤관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방금 당 대표, 지도부와 면담을 가졌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당에 많은 누를 끼치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여러 사실관계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조사과정에서 성실하게 이 문제를 밝혀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부로 선당후사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며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만 의원도 "먼저 국민 여러분과 지역구민, 당에 이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동안 당과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는 결국 검찰의 정치 공세도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당후사의 정신을 갖고 윤 의원과 함께 탈당하고 법적투쟁으로 진실을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원지 | 빠니보틀 | 곽튜브

진정한 마라맛을 찾아서

마라로드

NEW

NEW

NEW

마라로드 새우

마라로드 비프

마라로드 치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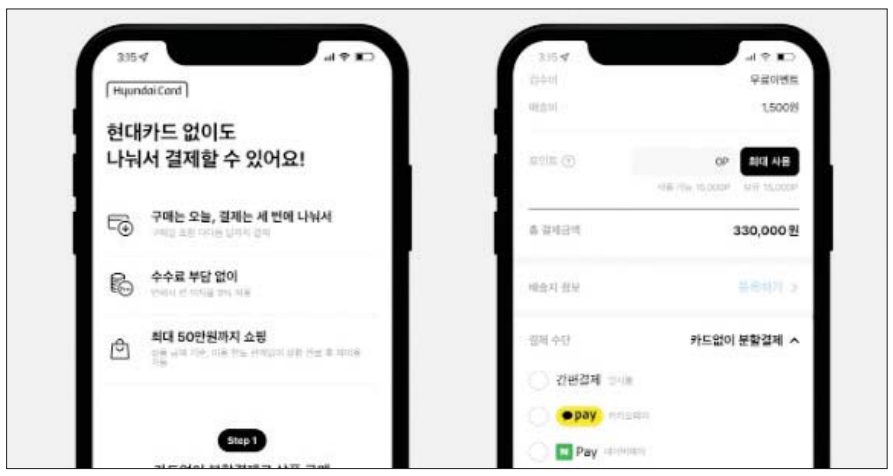
WARNING
매운맛주의

연체율 일제히 오르는데… 카드사 BNPL 진출 '시기상조'

〈선구매 후결제〉

핀테크社와 경쟁 위해 진입 예고
KB국민, 다날과 연내 서비스 준비

신한·삼성 등 1분기 연체율 상승
BNPL 연체율, 상대적으로 높아
새 할부 금융상품 골칫거리 우려



현대카드 무신사 BNPL 서비스 화면.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2개월만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현대카드

카드업계가 핀테크사와의 경쟁을 위해 선구매 후결제(BNPL) 시장 진입을 예고했지만 금융권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신사업을 시작하기에는 1분기에 상승한 연체율이 골칫거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BNPL이란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Buy Now Pay Later)'의 줄임말로 저신용자나 '신파일러(Thin Filer)' 또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할부 금융 상품이다.

BNPL 시장은 핀테크사를 중심으로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에 따르면 간편결제서비스 공급자별 비중에서 전자금융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50.4%로 과반을 넘어선다. 아울러 BNPL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44%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소비 선호도가 높아졌으며 MZ세대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국내 카드사 중 BNPL시장에 처음으로 뛰어든 곳은 현대카드다.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협력업체인 무신사의 '솔드아웃'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카드 없이 분할결제'라는 명칭의 BNPL서비스를 제공했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현재 임시 중단한 상태다. 서비스 재개 날짜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KB국민카드는 올해 BNPL서비스 출범을 예고했다. 사내벤쳐 기업인 '다날'과의 협업을 통해 준비중이다.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축적된 채권관리 역량을 활용해 연체율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금융업계에서는 BNPL서비스 출범 시기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실적이 공개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카드)의 연체율이 일제히 상승세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실적 발표 이후 카드업계는 올해 2분기 건전성 관리에 무게를 두고 운영을 이어나갈 것을 시사했다. 카드사의 연체율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새로운 할부 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BNPL의 연체율은 카드사의 금융상품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매달 30만원 한도로 소액결제만 가능하지만 신파일러와 저신용자의 이용률이 높은 만큼 연체율이 증가하기 쉬운 상품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카카오페이의 BNPL 총 채권액은 44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토스의 연체율은 1분기 기준 5%에 달한다. 이어 네이버파이낸셜(2.7%), 카카오페이(0.51%) 순이다. 카드사의 연체율이 1% 초반에 머물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카드업계에서는 카드사의 전문성이 BNPL 서비스 관리에 적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카드사의 경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가 BNPL 서비스를 제공하면 보다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김소영 "보험사 새 상품 기반 글로벌경쟁 필요"

〈금융위 부위원장〉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세미나
국내 업계 해외진출 전략 논의

"보험회사 간 출혈경쟁이 아니라 새로운 상품과 시장에서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보험상품의 모든 프로세스를 재점검해 새로운 보험상품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필요가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보험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 참석해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전략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글로벌 보험사의 경우 매출의 상당부분을 해외에서 창출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글로벌 보험사 수입보험료 연평균 성장률은 인도 8.7%, 중국 8.4%, 프랑스 6.5%인 반면 한국은 2.4%에 불과했다.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험료가 10.9%로 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광화문빌딩에서 개최한 보험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세계 평균(6.8%)치를 웃도는 것으로 봤을 때 보험료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채우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 주요국 보험회사들이 공통 성장전략 중 글로벌화를 꼽고 있다"며 "국내 보험회사도 성장가능성을 진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해외 보험회사가 국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가 예상보다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초고령사회와 다양한 생활 양태, 신기술을 경험한 글로벌 보험회사가 국내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경쟁과 혁신이 확대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보험상품이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는 한편 새로운 생활양식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글로벌화 정책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메리츠화재, 최대 28% 저렴해진 펫보험

보험 브리핑

한화생명, 유리한 절세방법 확인
'종소세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현대해상, 굿앤굿 가족감사 이벤트
퍼펙트플러스 가입시 10% 할인

메리츠화재가 펫보험 보험료를 줄여 가입 문턱을 낮췄다.

◆ 생후3개월부터 만10세까지 가입 가능

메리츠화재는 기존 대비 보험료가 최대 28% 저렴해진 펫퍼민트의 신상품2종 '(무)펫퍼민트Puppy&Love', '(무)펫퍼민트Cat&Love'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기존 상품과 보장 내용은 동일하지만 반려견과 반려묘의 보험료가 각각 3%, 15% 저렴하다.

의료비 담보의 자기부담금 유형을 추가해 선택 폭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자기부담금이 1만원으로 단일 고정이었으나, 2만원과 3만원 유형을 추가해 고객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2만원 또는 3만원을 선택할 경우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1만원 대비 2만원 선택 시 반려견은 8%, 반려묘는 7% 저렴하며 3만원 선택 시 반려견은 15%, 반려묘는 13% 내려간다. 자기부담금3만원 유형으로 반려묘를 가입할 경우 최대 28% 가까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해당 상품은 생후3개월부터 만 1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한화생명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절세 비법을 공유한다.

◆ '소크라택스' 활용해 5월 종합소득세 사전 확인

한화생명은 종합소득세를 직접 계산해 보고 유리한 절세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종소세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소크라택스는 긱워커 및 프리랜서를 위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속 없이 자유롭게 일하는 경우, 사업소득자로 분리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다.

앱에 접속해 '소득구간별 경비인정 비율', '거래입증을 위한 필요경비 증빙 방법' 등을 확인 후, 전년도 수입과 지출, 공제항목을 입력하면 사용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예상 납부세액을 바로 확인 가능하며, 절세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다.

'절세 바이블' 메뉴를 통해 세테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프리랜서가 꼭 알아두어야 할 혜택과 정책, 세무용어 등 흩어진 세금 정보와 지식을 한곳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대해상이 가정의 달 맞이 행사를 진행한다.

◆ '굿앤굿부모10%할인' 및 '굿앤굿어린이간편종합보험'

현대해상은 '굿앤굿 가족'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굿앤굿 가족'이벤트의 대상은 만 18세 이하의 굿앤굿어린이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자녀의 부모님이다. 현대해상 '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에 신규가입할 경우 어린이보험이 유지되는 동안 보험료 10%를 할인해 준다.

병력이 있는 어린이도 질문사항을 통해 가입 가능한 '굿앤굿어린이간편종합보험'도 출시했다. 질문사항은 3년 이내 중대질병 치료이력 여부 등 3가지로 간소화했다. 5세부터 최대 3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김정산 기자

한은 화폐박물관

"화폐속 세계유산전 관람하고 기념품 받으세요"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이 오는 10월까지 '화폐속 세계유산전'을 개최한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4일부터 10월 29일까지 화폐박물관에서 '화폐 속 세계유산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화폐 속 세계 유산전은 화폐에 담긴 다양한 정보를 터치스크린형 체험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전시회다.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2층 세계의 화폐실 내에서 진행한다.

아울러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은 5월 중 방문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증정한다.

이달 5일부터 7일까지 화폐박물관을

화폐속 세계유산전. /한국은행

방문한 관람객은 기념품을 제공하고, 어린이 관람객에게는 화폐박물관 발간 서적 '알고싶어요! 세상을 품은 화폐속 여성들'을 증정한다.

이달 9일부터 28일까지 '화폐 속 세계유산', '화폐 속 여성들의 빛나는 발걸음', '화폐 속 바다이야기' 전시회를 방문한 뒤 전시실 전경이나 관람 모습이 담긴사진을 SNS에 포스팅하면 기념품을 제공한다. /나유리 기자

‘숨’ 멎는 비주얼… KG모빌리티, 고급짐·가성비 다 잡았다

렉스턴 ‘뉴 아레나’·‘스포츠&칸 쿨멘’
실내 디자인·일부 외관 부분 변경
웅장한 실내와 하이엔드 모델
수평적 디자인·감성적 가치 갖춰

KG모빌리티 렉스턴 뉴 아레나 정측면.

렉스턴 뉴 아레나 클래시컬 베이지 인테리어.

‘SUV 명가’ 재건에 나선 KG모빌리티가 렉스턴 브랜드를 새롭게 개편했다. 실내 디자인과 일부 외관 부분 변경으로 변화를 예고했다.

KG모빌리티는 3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3 렉스턴 뉴 아레나 렉스턴 스포츠 쿨멘 미디어 데이를 개최하고 정통 SUV의 가치를 담은 ‘렉스턴 뉴 아레나’와 픽업 ‘렉스턴 스포츠&칸 쿨멘’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광호 KG모빌리티 국내사업본부장은 “이번에 공개한 두 제품은 내가 꿈꾸던 라이프스타일을 실현해 줄 동반자로 함께하는데 부족함 없는 상품성과 감성적 가치를 갖춰 변화될 일상에 활력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렉스턴 브랜드의 가장 큰 변화는 실내 인테리어다. KG모빌리티의 디자인 철학 ‘Powered By Toughness(파워드 바이 터프니스)’의 구조적인 강인함과 모던한 조형미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한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은 현대적 감각으로 새롭게 해석한 수평적 디자인 콘셉트를 활용하여 부드럽고 편안함을 만끽할 수 있도록 감성적 가치를 담았다.

‘렉스턴 뉴 아레나’는 왕가(Rex)의 품격(Tone)을 의미하는 렉스턴에 대형 전시장과 공연장을 의미하는 ‘아레나’를 덧붙여, 현대적이고 웅장한 실내외 디자인을 강조했다. 렉스턴 뉴 아레나 외관은 새로운 다이아몬드 세이프 그릴과 다이내믹 웰컴·굿바이 라이팅이 적용된 4빔 풀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 순차적으로 점멸되는 시퀀셜 다이내믹 LED 턴시그널 램프를 장착했다. 후면은 가로로 배치된 T자 형상의 LED 리어램프와 루프스포일러 일체형 보조제동램프, 듀얼 테일파이프 가니시(장식)가 조화돼 세련미를 더했다. 휠은 새롭게 디자인한 20인치 스퍼터링 휠이 장착됐다. 특히 더 블랙 모델은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 휠아치&도어 가니시, 뉴 디자인 20인치 스퍼터링 다크 휠 등 전용 아이템을 적용해 테마를 강조했다.

렉스턴 뉴 아레나의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은 수평 콘셉트를 활용하여 편안하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을 살렸다.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12.3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 날렵한 에어 벤트, 터치식 공조컨트롤러 등을 장착했다.

렉스턴 뉴 아레나의 파워트레인은 최고출력 202마력, 최대토크 45.0kg·m으로 엔진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일상영역(1600~2600rpm)에서 최대토크를 활용할 수 있으며, 8단 자동변속기는 변속감이 부드럽고 폭넓은 기어비로 주행 시 효율적인 RPM을 유지해 준다. 연비는 복합연비 기준 11.6km/L이다. 렉스턴 뉴 아레나의 판매 가격은 트림에 따라 ▲프리미엄 3979만 ▲노블레스 4553만 ▲더 블랙 5173만 원이다.

스포츠&칸 쿨멘의 가장 큰 변화는 외관 전면부 디자인과 함께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의 변화다. 렉스턴 뉴 아레나 실내 인테리어 콘셉트를 함께 공유한 스포츠&칸 쿨멘은 기존 인테리어의 복잡한 형태를 최소화한 수평적 디자인 콘셉트를 활용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개방감과 넓은 시야각을 제공할 뿐만 나이라 편안하면서도 모던하게 완성했다.

운전석 전면의 각종 스위치들은 인체공학적이고 직관적으로 배열하여 조작 편의성을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12.3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과 공조 컨트롤러는 미래지향적이면서 세련된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터치식을 적용하여 각종 정보의 시인성은 물론 조작성과 편의성까지 극대화했다.

스포츠&칸 쿨멘의 파워트레인은 최고출력 202마력, 최대토크 45.0kg·m이며, 글로벌 메이커를 통해 시장에서 검증된 아이신(AISIN AW)사의 6단 자동변속기는 뛰어난 동력전달 성능과 내구성이 장점이다.

신형 스포츠 쿨멘의 판매 가격은 트림에 따라 ▲프레스티지 3478만원 ▲노블레스 3831만원이며, 스포츠 칸 쿨멘은 ▲프레스티지 3709만원 ▲노블레스 4046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에이서 “3년내 韓 외산PC 톱3 진입 할 것”

㈜한성과 국내 공식 파트너 계약
주요 제품 공급 독점 총판 체결
신제품·서비스 강화해 공략

에이서 노트북 신제품 ‘스위프트 고 16’.
/허정윤 기자

에이서(Acer)가 절치부심의 마음으로 한국 PC 시장을 다시 공략한다.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에이서 지사에서 가장 ‘젊은 피’를 대표로 수혈하며 공격적인 태세를 갖출 전망이다.

에이서는 3일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제품 설명회와 에이서 한국 법인의 포부를 밝혔다.

특히 웨인 니엔(Wayne Nien) 에이서 한국법인 대표는 에이서가 ‘글로벌 톱5 PC 브랜드’라는 것을 강조하며 그간 쌓아온 본사의 경험과 투자, 자원을 활용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에이서는 대만 신베이시에 본사 둔 글로벌 PC 제조사로 1976년 설립됐다. 1996년 국내 시장에 진출했었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고 2001년 한국에서 PC 사업을 철수해 국내 고객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다. 현재는 전 세계 160여 개국에 진출해 있고 9만 5000개 이상의 리테일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PC 제조사로 알려져 있다.

에이서는 이후 2009년 한국 시장에 재진출, 일본 법인이 위탁·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오다가 지난해 10월 ㈜한성과 국내 고객서비스 공식 파트너 계약 및 주요 제품 공급에 대한 독점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한국 고객 공략에 나섰다.

웨인 니엔 대표는 “국내 파트너와 긴밀한 협력으로 3년 이내 국내 외산 브랜드 톱 3에 진입하겠다”고 말하며 유창한 한국어로 ‘스위프트 고16’을 필두로 신제품 소개와 Q&A 세션을 이어갔다.

웨인 니엔 대표는 1991년생으로 파격적인 인사로 선임 이후부터 줄곧 관심을 끌어왔다. 그는 “에이서는 가성비 노트북으로 2030 고객들, 직장인 위주 공략을 노리고 있다”며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소비자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 한국 법인을 다시 설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에이서 측은 코로나19 발생으로 2019년부터 준비한 한국 법인 설립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웨인 대표는 “국내 파트너사인 한성 직영점 통해 전국에 100개 넘게 서비스 센터 확장 준비 중”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대한항공, 운항비용 상승에 영업익 절반 ‘뚝’

1분기 전년比 47% 감소 4150억

대한항공이 1분기 여객 수요 회복으로 인해 매출은 증가했지만 유류비와 운항비용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대한항공은 3일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3조1959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한 4150억원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여객 수요의 꾸준한 회복세 및 화물 사업의 지속적 수익 창출에 힘입어 매출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1분기 여객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94% 증가한 1조7777억원을 기록했다. 여객 수요 호조를 바탕으로 공급 및 수송이 꾸준히 회복되며 매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분기 수준에 가까운 수익을 기록하며, 여객 사업 정상화가 이어지고 있다.

1분기 화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한 1조485억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 및 여객기 하부 화물칸(Belly Cargo) 공급 증가에 따른 운임 하락으로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

2분기에는 글로벌 항공 시장 회복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별 방역 규제 등 운항 및 이동 제약이 대부분 해소됨에 따라 여객 수요가 지속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적극적인 공급 확대를 통해 여객 사업 조기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화물 사업은 글로벌 경기침체 불안감으로 항공화물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시장 수급 상황 변화를 면밀히 살펴 적기 대응하고 적극적 신규 수요 개발을 통해 수익 기반을 지속 확장할 예정”이라며 “ 여객기 복항 목적지에 맞는 선제적 판매 전략 수립으로 화물 판매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X월드 ‘DJ 페스티벌’ 초청 이벤트

삼성전자가 6월 2일부터 4일까지 과천 서울랜드에서 개최되는 ‘2023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이하 WDJF)’의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한다. ‘갤럭시 in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이하 Galaxy in WDJF)’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삼성전자는 ‘Galaxy in WDJF’를 함께 즐길 이벤트를 이번달 4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현대車, ‘대형 수소트럭’ 북미시장 공략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트랙터 공개

현대자동차가 북미 시장에 특화된 대형 수소전기트럭을 공개하고 수소 상용 모빌리티 비전을 공개했다.

현대차는 1일부터 4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시에서 열리는 북미권 최대의 청정 운송수단 박람회인 ‘ACT 엑스포 2023’에서 ‘엑시언트(XCIENT) 수소전기트럭 트랙터’의 양산형 모델을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트랙터’ 장거리 운행이 많은 북미 특성에 맞춰 개발된 총중량 37.2톤급 6x4(3개 차축 가운데 2개가 구동되는 방식) 대형 트럭이다. 180㎾급 수소연료전지시스템과 최고 출력 350㎾급 구동모터를 탑재했다. 1회 충전 시 최대 적재 상태에서도 720㎞ 이상을 주행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마이카 알람 서비스’ 선보여

LG전자가 주차 중 차량 상태를 스마트폰 뿐 아니라 TV로도 알려주는 서비스를 론칭했다. LG전자는 3일 ‘마이카 알람 서비스’를 공개했다. KG모빌리티 신차인 렉스턴 스포츠&칸 쿨멘과 렉스턴 뉴 아레나에 처음 탑재된다.

마이카 알람 서비스는 주차 중 차량 정보를 TV로 알려주는 기능이다. 스마트 TV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주차된 차에 충격이나 전기차 배터리 충전 상태, 문 열림 사고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LG전자는 이를 통해 스마트폰을 곁에 두지 않고 TV를 보다가도 주차 차량 돌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커넥티드카 앱을 스마트폰에서 TV로도 확대한 것.

아울러 LG전자는 신차 출시와 계절성 이벤트 등 프로모션 정보, 유용한 콘텐츠 등도 TV로 전달할 수 있어 완성차 업체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웅 기자 juk@

KT, MSCI 지수 편입 여부에 "주가 호재" vs "실적 전망 ⬇"

外人 지분율 41.65% 이하로 편입 시
순매수 예상 규모 1996억 전망
1분기 영업익 하락이 변수될 듯
통신주 디커플링… "주의 필요"

KT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편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수로 편입되면 전체 시총 약 8조원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이 유입된다.

KT는 3일 5월 리뷰에서 에코프로, 코스모신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금양 등 4개 종목과 함께 지수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

시가총액 및 유동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MSCI 지수에 편입되면 통상 주가가 오른 사례가 많다. 다만, 최근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은 지수 편입에 제외될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MSCI 지수는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발표하는 세계시장지수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의사 결정에 참고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세계 주요 지수 중 추종 자금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가총액 및 유동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편입 종목을 선정한다.

MSCI의 유효 추종자금 규모는 4000억달러(약 527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지수에 편입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등 패시브 펀드를 통해 상당 규모의 외국인 투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지수에서 퇴출되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최근 MSCI 지수에 편입·편출된 종목의 주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지수 편입에 성공한 종목에서 약 절반은 60% 대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KT는 MSCI 지수에 편입되면 지금까지 사례를 분석해볼 때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외국인 수급이 관건인데, 26개 종목 중 22개 종목이 3개월 동안 외국인 순매수를 기록한 바 있다.

KT에 있어서는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MSCI는 외국인 투자 제한 종목에 대해 지수로 편입될 시 외국인이 추가로 보유할 수 있는 수량을 들여다보게 된다. KT의 경우, 심사 기준일 외국인 보유비율이 41.6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일 외국인 지분율은 40.4%로 집계됐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심사일 기준 KT의 외국인 지분율이 41.65% 이하일 경우, MSCI에 편입되고 편입시 순매수 예상 규모는 1996억원으로 전망된다. 4월 6일 기준 외국인 지분율은 40.65%"라며 "최근 KT는 지배구조 관련 잡음에 시달리고 있고, 자사주 매입이 진행되고 있어, 외국인 지분율이 41.65% 이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KT가 1분기에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줄어든 실적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실적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실적 등을 따져봐야 하며, 단순히 MSCI 지수에 편입된다고 해서 주가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MSCI 500억 유입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과거 SK텔레콤과 KT 편출입 사례를 보면 하루 이틀 안에 거래가 끝날 공산이 크다"며

"통신주도 이제 디커플링이 나타날 수 있다. KT는 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디커플링이란 어떤 지역의 경제가 인접한 다른 국가나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흐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현상을 가르킨다.

그는 "경영진 교체 리스크는 주가에 이미 반영된 반면, 올해 이익 및 DPS(주당배당금) 감소 우려는 아직 주가에 미반영됐고, 국내 통신 3사 중 향후 3년간 이익/DPS 성장률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배당수익률이 가장 낮게 형성돼 있었다. 올해 연결 뿐만 아니라 배당의 근원인 본사 영업이익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회성 비용을 제거한 2022년 실질 배당 성향이 55%였음을 감안할 때 2023년엔 DPS 감소가 예상된다"며 "지난해 양호한 모습을 보였던 영업비용이 3사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생긴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2023년 KT 실적은 다른 이통사들과 달리 좋지 못할 것이며, 4월 이후 실적 전망치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1분기 실적에 실망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강해질 것이다. 자사주를 매입할 때 비중 축소에 나서는 것이 현명해보인다"고 분석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SK지오센트릭, 울산 ARC 내 해중합 공장 건설한다

〈플라스틱 재활용 종합 클러스터〉

캐나다 루프社와 JVA 체결
폴리에스터 섬유 재활용 가능
亞 해중합 기술 상업화 독점권
프랑스서 수에즈社와도 협업

SK지오센트릭이 울산에 세계 최초 플라스틱 재활용 종합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재활용 핵심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과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SK지오센트릭은 캐나다의 루프(Loop Industries)와 합작법인 설립 계약(JVA)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체결식은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 다니엘 솔로미타(Daniel Solomita) 루프 CEO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화상 연결로 진행됐다.

SK지오센트릭과 루프는 51대 49 비율로 각각 지분 투자해 합작법인을 연내 설립 예정이다. 이 합작법인은 SK지오센트릭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구축 중인 플라스틱 재활용 종합 클러스터(울산 ARC, Advanced Recycling Cluster) 내 연 7만톤 규모의 해중합 재활용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오른쪽)과 다니엘 솔로미타(Daniel Solomita) 루프 CEO가 온라인 화상연결로 진행된 체결식에서 합작법인 설립에 합의했다. /SK이노베이션

루프는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의 일종인 해중합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해중합 기술은 유색 페트(PET)병, 폐폴리에스터 섬유 등 플라스틱을 이루는 큰 분자의 중합을 해체시켜 플라스틱 기초 원료 물질로 되돌리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폐플라스틱을 고품질 재생수지로 다시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아시아는 글로벌 제조업 중심지로 페트(PET)와 폴리에스터 섬유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 중 하나다. 특히, 폴리에스터로 만든 스포츠의류, 봉제원단, 현수막 등은 현재의 기술로는 재활용이 어려워 주로 소각-매립되고 있다. SK지오센트릭 측은 "합작법인 공장이 설립되는 2025년 이후엔 이러한 폴리에스터 섬유도 재활용이 가능해져,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오염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합작법인은 아시아에서 해중합 기술 상업화의 독점적 권리도 갖게 된다. 양사는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아시아에서 최소 3개 이상의 해중합 공장 건설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재활용 플라스틱 수요를 선점할 계획이다.

SK지오센트릭은 유럽에서도 루프와 협력하며 플라스틱 재활용 합작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다. 양사는 프랑스의 환경전문기업 수에즈(SUEZ)와 함께 프랑스 북동부 생타볼 지역에 오는 2027년까지 연간 7만톤 규모의 재활용 공장 설립을 목표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은 "이번 합작법인 설립 계약으로 재활용 공장 건설 구체화는 물론 세계 최고의 리사이클링 소재 기업(Global No.1 Recycling Material Company)이라는 목표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며 "루프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니엘 솔로미타 루프 CEO는 "SK지오센트릭과 수년간 긴밀한 협력으로 페트(PET)와 폴리에스터 섬유의 순환경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다"며 "아시아지역 합작 공장 설립을 통해 폴리에스터 섬유를 활용하는 글로벌 브랜드 고객들도 순환경제 구축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넷마블 게임콘서트'서 건강한 게임문화 공유

게이미피케이션 중요성 높아

넷마블문화재단은 건강한 게임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달 29일 넷마블 본사에서 '2023 넷마블 게임콘서트'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게임콘서트는 넷마블문화재단이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게임산업 트렌드 및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현업자의 경험을 나누는 오픈 포럼 형식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게임과 미래'라는 메인 테마 아래 올해 첫 번째로 열린 이번 16회 게임콘서트는 사전신청에 선정된 100여명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균관대학교 최재붕 교수와 이지콘텐츠연구소 이동건 대표의 강연이 진행됐으며, 강연자와 소통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 및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 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이뤄졌다.

2023 넷마블 게임콘서트서 (왼쪽부터)김수현 아나운서, 최재붕 교수가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넷마블

'디지털 신대륙의 성공열쇠, 게임'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최재붕 교수 "지난 10년간 인류 문명의 디지털 대전환이 발생함에 따라 인류는 디지털세계관을 바탕으로 상상력과 실력을 키워야 하며, 진정성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건 대표는 '게임으로 배워볼까요'라는 주제로 게임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또한 교육기능성 게임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경험과 노하우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대표는 "교육 분야에서도 게이미피케이션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역할 또한 증대되고 있다. 이를 교육 현장에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획력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게임콘서트 강연 내용은 추후 유튜브 채널 '넷마블TV'에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HD한국조선해양, 업계 최초 탄소중립 선언

저탄소 연료 활용·전력 소모량 ⬇ 방안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연료 전환 ▲재생에너지 도입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등의 세부 계획을 담은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 부문에서 발생하는 연간 탄소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해(2018년 대비 2030년 28%, 2040년 60%),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HD한국조선해양의 탄소중립 방안은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를 바탕으로 스코프(Scope) 1과 2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스코프란 GHG(온실가스) 프로토콜이 정한 기업의 탄소 배출 범위를 말한다.

먼저 스코프 1에 해당하는 직접 배출 탄소량 관리를 위해 HD한국조선해양은 시운전 선박과 운송용 차량에 쓰이는 연료를 수소, 메탄올, 암모니아와 같은 저탄소 연료를 활용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스코프 2로 분류되는 사업장 내 간접 배출은 크레인 등의 핵심 부품을 교체해 전력 소모량을 줄이고, 조선소 내 LED 조명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태양광과 풍력을 활용한 자가발전과 전력구매계약 등을 통해 2050년까지 'RE100'(재생에너지 100%)도 달성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2022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수상작!
블록버스터 뮤지컬
아레스 사우루스
2023. 6. 2(금) - 6. 25(일) 우리금융아트홀
© STUDIO EON / DAEWON MEDIA
예매 | 인터파크티켓 문의 | 02-764-9102 주최 | 대원미디어 주관제작 | 이지기획 마케팅 | 이제이컴퍼니

〈하한가 따라잡기〉

개미들 '하따' 한탕주의 베팅에 "상폐·추가하락 위험, 신중해야"

금투업계, 급락주식 매수 주의보
서학개미, SVB 파산사태 발생이후 관련주 1247억 매수 후 '상장폐지'
동학개미, SG發 연루종목 사들여 매수세에 반짝 반등 후 큰폭 하락

최근 개인투자자들이 주가급락 종목을 저가매수의 기회로 보고 공격적인 베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들인 종목들이 상장폐지 또는 추가 급락하면서 손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한탕주의식의 투자 행태는 위험하다며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주가가 급락한 주식을 매수하는 이른바 '하따(하한가 따라잡기)' 투자로 큰 손실을 보고 있다. 서학개미들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주식을 9295만4368달러(약 1247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이들은 이미 주가 하락으로 큰 손실을 본 상황에서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이 지난 1일 상장폐지됨에 따라 한 푼도 회수할 수 없게 됐다.

이외에도 서학개미는 최근 상장 폐지를 예고한 미국의 가정용품 판매 업체 베드배스앤드비욘드(BBBY) 주식도 4월 한 달간 1266만달러(약 169억원)어치 사들였다. BBBY는 대표적인 밈 주식으로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관련 없이 온라인에서의 입소문만으로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렸다. BBBY가 지난달 24일 파산 보호를 신청한다는 소식에 주가는 4월 마지막 주 5 거래일간 46% 이상 폭락했고, 지난 2일 0.0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또한 동학개미들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SG증권발 주가조작에 연루된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개인투자자들은 삼천리(786억원), 하림지주(467억원), 서울가스(358억원), 대성홀딩스(328억원), 선광(294억원), 세방(291억원) 등을 순매수했다.

이들 종목은 지난 24일 SG증권발 매물 출회로 급락세를 이어가다가 지난달 28일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지난 2일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날 선광(-12.73%)과 서울가스(-12.12%), 대성홀딩스(-11.45%), 삼천리(-7.65%), 다우데이타(-5.24%), 하림지주(-3.09%), 세방(-0.22%) 등 모두 하락으로 마감하며 반등에 성공한 지 하루 만에 주가가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이날도 대성홀딩스(-7.63%), 선광(-7.36%), 세방(-5.49%), 서울가스(-4.09%), 다우데이타(-1.15%), 하림지주(-0.55%) 등은 모두 하락 마감했다. 다만 삼천리는 0.71% 소폭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다.

특히 주가조작 관련 의혹이 진행 중인 이들 종목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 저가매수에 나서는 것은 손실을 키울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부 투기성 매수세가 몰린 종목군의 급락과정에서 저점을 예단한 투자자들이 무턱대고 투자하고 있다"면서 "당분간 이들 종목의 변동성 확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기 반등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2023 Milken Institute Global Conference'에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손병두, 미국판 다보스포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나서

'밀켄연구소 글로벌 컨퍼런스' 참가
KRX, 韓 자본시장 홍보활동 전개
IRC폐지 등 접근성 제고방안 설명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달 30일부터 5월 3일까지 미국 LA 베버리힐즈에서 개최된 '2023 Milken Institute Global Conference(컨퍼런스)'에 참가해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 자본시장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해당 컨퍼런스는 비영리 독립 경제연구소인 밀켄 연구소(Milken Institute)가 1998년부터 개최하는 연례 국제행사이다. 포춘 선정 500대 기업 경영진을 포함한 경제·정치·사회·문화 분야 저명인사 수천 명이 참석하는 '미국판 다보스 포럼'으로도 불린다.

올해 최초로 한국 자본시장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단독 세션이 개설됐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포함한 세션 참가자들은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시장 접근성 개선 등 범정부 차원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특히 손 이사장은 본 세션에서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IRC) 폐지, 영문 공시 확대 도입, 외환시장구조 개선 등 거래소와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외국인 투자자 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 사전 등록 의무 폐지는 올해 완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ESG 공시기준 및 평가 관련 이슈,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우량기업 상장유치 등 한국 자본시장 관련 주요 이슈와 현안을 공유했다.

손 이사장은 "앞으로도 해외 로드쇼 등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 대상 한국 자본시장 홍보 및 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코스피200 주가수익비율 11.3%… 신흥국보다 낮아

KRX, 유가증권·해외시장 투자지표
선진국 주가수익비율 평균 17.9%
중국·인도 등 신흥국 평균 12.5%

〈해외시장 투자지표 비교 (코스피200 기준)〉 /자료=한국거래소

구분		PER(배)	PBR(배)	배당수익률(%)	구분		PER(배)	PBR(배)	배당수익률(%)
한 국		11.3	0.9	2.2	신흥국	중 국	13.7	1.4	2.6
선진국	미 국	20.4	4.2	1.6		대 만	12.6	2.2	4.4
	일 본	16.3	1.4	2.4		인 도	23.6	3.2	1.4
	영 국	11.0	1.7	4.3		브라질	5.5	1.5	7.6
	프랑스	13.8	2.0	2.8		태 국	22.5	1.9	2.9
	전 체	17.9	2.9	2.2		전 체	12.5	1.6	3.2

코스피200의 주가수익비율(PER)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배당수익률은 선진국과 유사했지만 이 역시 신흥국보다는 낮았다.

3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유가증권시장과 해외 주요시장 투자지표 비교'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코스피 상장기업의 순이익과 현재의 주가 수준을 비교한 코스피 PER은 전년 11.1배에서 13.3배로 소폭 상승했다.

반면, 2022년말 코스피 상장기업의 순자산과 현재의 주가수준을 비교한 코스피 PBR은 전년의 1.1배에서 1.0배로 하락했다.

2일 기준 코스피200 지수의 PER은 11.3배다. 거래소 분석에 따르면 선진국(미국 등 23개국) 평균은 17.9배로 한국은 기준보다 아래를 웃돌았다. 특히 미국은 20.4배로 2배 수준의 격차를 보였으며, 이외에도 일본은 16.3배, 프랑스 13.8배 등 한국보다 높았다. 다만 영국은 11.0배로 한국보다 소폭 낮았다. 신흥국과 비교해도 중국(13.7), 대만(12.6), 인도(23.6), 태국(22.5) 등 한국이 낮은 수준이다.

코스피 PBR은 0.9배로 평가됐는데, 1배 미만이라는 것은 시가총액이 장부상 순자산가치(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수준의 저평가를 의미한다. 미국은 4.2배로 한국의 약 4배 수준이다. 선진국 평균이 2.9배, 신흥국 평균이 1.6배인 것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 그보다 낮은 수준에 그쳤다. 한국은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했으며, 해외 주요시장은 MSCI 국가지수 기준으로 집계했다.

거래소는 "PER 상승은 전년의 급격한 주가 하락세 이후 저가 매수세 유입과 시가총액 감소 대비 상대적으로 큰 순이익 감소에 기인했다"며 "PBR 하락 이유는 코스피 상장기업의 자본총계가 증가했음에도 주가는 약세를 시현한 데에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대우건설, 서울시, 도봉구청, 한국해비타트 관계자들이 안심동행주택 9호 주택에서 완공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우건설

대우건설, 쌍문동 안심동행주택 9호 '입주'

서울시-한국해비타트와 합동
창호·조명교체, 방수공사 등 실시

대우건설은 서울특별시, 한국해비타트와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민관협력사업(이하 안심동행주택) 9호의 완공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안심동행주택 9호로 선정된 가구는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주택으로 허리디스크와 무릎 수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령의 모친과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진 아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가정은 생활 및 거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택의 사용승인년도는 지난 1993년으로 바닥이 매우 습하고 환풍이 되지 않는 노후화 됐다. 단열 효과가 낮고 창문 틈새로 물이 새는 등 실내 사용도 어려운 구조였다.

해당 세대에는 ▲주택의 창호 및 조명 교체 ▲방범창, 침수경보기, 화재감지기 설치 ▲환풍기, 타일, 양변기 교체 및 추가 방수 공사 ▲거동이 불편한 거주자를 위해 바닥 평탄화와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는 공사를 실시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서울시와 대우건설, 그리고 해비타트가 시행하는 새로운 주거복지 사업 모델"이라면서 "취약 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이와 같은 사업을 올해 이후에도 지속 가능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금감원, CFD 관련 키움증권 조사 나서

SG發 주가폭락 원인으로 거론

금융감독원이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 3일부터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SG증권발 폭락 사태에 대한 현안 보고를 통해 금감원의 CFD와 관련된 주요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 방침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3일 오전 키움증권에 대한 CFD 검사에 착수하며, 나머지 CFD 판매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CFD와 관련한 개인 전문투자자 여건 및 규정을 충실히 지켰는지와 고객 주문 정보의 이용, 내부 임직원의 연루 여부 등을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등기이사로 등재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주가조작 연루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 회장은 주가 폭락 이틀 전 605억원 규모 주식을 처분해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CFD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원관희 기자

“남성도 레깅스 입고, 로고는 숨겨요” 패션 新트렌드 주목

꾸안꾸 가고 꾸꾸

(下) 라이프스타일

2023 s/s 남성패션 키워드로 기업들 ‘젠더 플루이드’ 꼽아

갤럭시, 여성복 실루엣 슈트 발표 젝시믹스, 레깅스 남성영역 확대

로고리스 제품 새로운 명품으로 퍼스널 컬러 추천 앱 ‘급부상’

2022 올리브영 어워즈 앤 페스타에서 국내 클린뷰티 브랜드 ‘라운드랩’이 고객들에게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CJ올리브영

팬데믹을 거치면서 패션 ·뷰티 산업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소비자의 취향은 더욱 다양해졌고, 남성 ·여성복의 경계가 허물어진 ‘젠더플루이드 패션’이 새롭게 떠올랐다. 또 겉으로 드러나는 로고를 우선시하기보다 품질과 브랜드 스토리를 중시하는 신명품 트렌드가 확산됐다.

젠더플루이드란 성별 정체성이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으로 전환되는 젠더를 말하며, 젠터플루이드 패션은 남자다움과 여성스러움을 차용하는 개념이 아닌, ‘나는 나대로’라는 개념에 가까운 패션이다.

◆패션에 성별은 없다

삼성물산, 신세계인터내셔날, 한성 등 국내 유명 패션 기업들은 2023 S/S 주요 남성 패션 트렌드 키워드로 젠더플루이드를 꼽으며 여성성이 반영된 남성용 의류와 액세서리를 앞다투어 선보이고 있다. 삼성물산의 남성복 브랜드 ‘갤럭시’는 디자이너 브랜드 강혁과의 협업을 통해 여성복의 실루엣을 적극 수용한 우아한 테일러드 슈트를 발표했으며, 요가복으로 유명한 애슬레저 브랜드 ‘젝시믹스’는 2020년 론칭한 맨즈 라인을 강화하며 레깅스를 남성의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의 대표적인 여성복 브랜드 ‘스튜디오 톰보이’는 지난해 9월 남성 패션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남성복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남성 패션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64% 늘어났다. 이 기간에 전체 톰보이 매출에서 남성 옷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서 10%로 두 배 뛰었다.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시대를 거치면서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자기 자신에게 잘어울리는 것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며 “젠더플루이드 패션은 현대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로고없이 원단으로 알아보는 신명품

그렇다면 MZ세대가 열광하는 브랜드는 무엇일까. 최근에는 브랜드 로고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로고리스(logoless)’ 제품이 신(新)명품으로 통하고 있다.

갤러리아백화점에 따르면 대표적인 ‘로고리스’ 패션 브랜드인 ‘제임스펄스’의 국내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실제로 제임스펄스 갤러리아명품관 매장의 매출은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전년대비 9% 증가했다. 현재 운영중인 수도권 매장의 월 평균 매출은 약 1억원으로 상품군 내에서도 상위권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제임스펄스는 미국 LA 대표 프리미엄 편집숍인 맥스필드의 창립자 토미 펄스의 아들 제임스 펄스가 론칭한 브랜드로 기본 티셔츠, 니트, 바지 등 베이직한 의류로 유명하다. 원단의 품질이 좋고 유행을 타지 않아 오래도록 입을 수 있는 점이 강점이다.

갤러리아 측은 ”최근 젊은 고객들은 로고를 보자마자 알 수 있는 패션보다는 품질이 좋은 신명품을 많이 찾는 추세“라고 밝혔다.

새로움을 착장한 해외 브랜드도 MZ세대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메종키츠네’ ‘르메르’ ‘톰브라운’ 등 브랜드를 발판삼아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지난해 ‘자크뮈스’, ‘스튜디오 니콜슨’ 등 브랜드를 새롭게 발굴했다.

‘스튜디오 니콜슨’의 경우 지난해 9월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에 오픈 직후 주말부터 매출 2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2030세대에게 주목받고 있는 브랜드다. 디테일과 소재가 타 브랜드와 차별점이며, 젠더리스 스타일이 돋보인다.

◆초개인과 시대 ‘퍼스널 마케팅’이 주요

업계는 대다수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이 아닌 개인에 초점을 둔 마케팅을 펼치며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소비자 개인의 체형과 퍼스널 컬러(Personal Color)를 반영해 제품을 추천하는 컨설팅을 도입해 만족감을 높이고 있다.

퍼스널 컬러는 ‘개인이 가진 신체와 어울리는 색이 있다’는 색채학 이론으로 이에 기반한 패션 스타일 추천 앱도 급부상했다.

대표적으로 스타일 앱 ‘코콘’은 지난해 기준 회원 수는 22만명을 넘겼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3만~4만명 사이다. 연령층은 10~20대가 80%로 가장 많다. 본인의 사진을 앱에 업로드하면 퍼스널 컬러, 얼굴 이미지를 분석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H&B 강자 올리브영도 지난 4월 한 달간 다양한 색조 신진 브랜드를 앞세운 ‘컬러 올 레디’ 캠페인을 전개했다. 개인별 피부 톤에 맞춰 색조 화장품을 추천하는 퍼스널 컬러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무조건 남들이 하는 대로 유행을 따라하기보다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추구하는 게 요즘 MZ세대의 패션 ·뷰티 철학”이라며 “초개인화 시대에 맞춘 퍼스널 마케팅이 인기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K모빌리티 미래’ 초점… 작지만 실속 꽉 찼다

김재웅의 봄봄봄

전기차 라인업 전시 등 시승도 제공
소형·청소 로봇등 이목 사로잡아
지자체와 지역 대학들도 동참

한국전력공사는 다양한 충전 시스템을 선보였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국제전기차엑스포(IEVE)는 볼거리가 많진 않아도 실속이 있었다.

2일부터 5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와 중문단지 일대에서 열리는 IEVE는 단순히 규모로 보면 크지 못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한 주요 완성차도 참여하지 않았다. BMW 공식 딜러사 도이치모터스가 대신 전기차 라인업을 전시하고 테슬라가 소규모 시승을 제공할 뿐이었다.

그렇다고 의미가 작지는 않았다. 이미 전기차가 보편화된 만큼 단순한 전시보다는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현실적 논의와 공론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김대환 국제전기차엑스포 이사장 설명. 실제로 전시장은 업계 관계자들의 네트워크 활동으로 시끌벅적했다.

국제컨벤션센터 1층이 메인 무대다. 행사장은 대기업이 점유하는 여느 박람회와는 달리, 중소기업과 학교, 연구소 등이 작지만 알찬 부스를 통해 실속있는 교류를 나눴다. 관계자들은 서로 부스를 공유하고 인사를 나눴다. 일부는 행사가 끝난 후 만남을 약속하기까지 했다.

업체도 다양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가 아이오닉5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부스를 넘어서면 삼륜 전기 오토바이를 전시한 BSP를 비롯한 B2C 는 물론, 다양한 부품 업체들이 저마다 인정받은 금형 등 가공 기술로 만든 부품과 함께 새로운 고객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래 모빌리티 난제인 에너지 문제도 논의됐다.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차 충전 솔루션부터 발전까지 망라하는 미래 계획을 소개하고, 충전 솔루션 업체 PEP 도 전기 오토바이를 위한 충전기를 전시했다.

미래 로봇 기술도 여럿 자리잡았다.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이 만든 수소전지 파워트레인을 활용한 소형 로봇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내놓은 청소로봇 한아 등이 이목을 사로잡았다.

지자체와 지역 대학들도 동참했다. 다음달 예정된 광주미래산업엑스포를 비롯해 광주경제자유구역청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대구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영남대학교 미래차전환부품사업단과 울산대 등 지역 대학교 등이 다양한 기술과 제품들을 소개하며 미래 발전과 투자 유치를 노렸다. 제주중국상회와 주한필리핀대사관, 한아세안센터 등 국가적으로도 IEVE에 합류해 협력을 모색했다.

행사장을 가장 많이 채운 것은 단연 대학생들이었다. 자율주행경진대회를 위해 전국에서 제주로 몰려든 것. 소형 전동차를 활용해 행사장을 누비며 시험주행을 이어가고 있었다. 참가만이 아니라 박람회를 누비며 새로운 기술을 느끼고 결의를 다지는 모습이다.

그 밖에 1층에는 도이치모터스의 BMW 전동차와 함께 제주도미래혁신관이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있었다. 전동화 및 수소전지 선박 모델과 함께 리텍과 우진산전의 전기버스도 야외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했다.

/제주=김재웅 기자 juk@

현대車,미래차 보며 상상력도 쑥쑥

14일까지 ‘현대 키즈 모터쇼’

현대자동차가 오는 14일까지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3층에서 ‘제7회 현대 키즈 모터쇼’를 개최한다.

‘현대 키즈 모터쇼’는 2016년 세계 최초 어린이 상상력 모터쇼란 콘셉트로 시작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현대차의 대표적 성장세대 캠페인으로 자리 잡았다.

‘상상 속 미래 모빌리티를 그려주세요!’라는 주제로 지난해 진행된 ‘제7회 현대 키즈 모터쇼’ 공모전에 많은 어린이들이 참가해 자동차를 포함한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를 아이들의 시선으로 재미있고 다양하게 그려냈다.

지난해 11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1만7392점이 접수된 키즈 모터쇼는 예비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작 150점을 확정한 후, 전문가 집단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부문으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3점’,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상 3점’

‘제7회 현대 키즈 모터쇼’,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상 수상작 ‘리사이클링 블록 모빌리티’ 수상자(조율)와 친구와 함께 사진 찍는 모습.

총 6점을 선정했다.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한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및 일반인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를 잘 표현한 최우수부문 6점을 친환경 종이를 활용한 아트작품을 제작하여 전시한다.

/양성운 기자 ysw@

청호나이스, ‘직수얼음정수기’ 선봬

청호나이스가 창립 30주년, 얼음정수기 출시 20주년을 맞아 신제품 ‘직수얼음정수기 뉴 아이스트리’를 출시했다.

3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직수얼음정수기 뉴 아이스트리는 지난해 6월 출시한 ‘직수얼음정수기 아이스트리’와 크기는 같은 대신 얼음저장용량은 13% 늘린 국내 최대 저장용량 900g을 자랑한다. 가로 25.4㎝ 크기에 최대 약 90개의 얼음을 보관해 넉넉한 저장용량을 자랑하며 하루 제빙량도 6kg(약 600개)으로 넉넉한 얼음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산업부 "12개 수출 유망분야 발굴 밀착지원해 수출플러스 달성할 것"

제2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 개최

대한무역투자진흥公 등 17곳 참여
농수산식품·ICT 등 분야 지원

정부와 수출지원기관들이 우리 주력산업 외 농수산식품, 콘텐츠 등 12개 수출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을 견인할 세부 품목을 발굴해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김완기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17개 수출지원 기관이 참여하는 '제2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전 부처 주요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해 수출유망품목 지원방안, 예산 집행 실적점검, 수출지원기관간 협업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수출지원기관들은 특히, 주력산업 외에 농수산식품·ICT(정보통신기술)서비스·콘텐츠·의약품 등 12개 수출유망 분야중 수출을 끌어올릴 세부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진출권역별 맞춤형 컨설팅, 해외전시회, 현지 밀착지원 등 집중 지원을 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지난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4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회의에서는 수출마케팅·인증·물류 등 올해 수출지원예산 60%의 상반기 조기 집행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기관별 예산 집행 실적과 목표 달성 계획을 점검했다.

또 한류 연계 합동 박람회 개최, 해외전시회 정보 통합제공 시스템 구축, 콜드체인 인프라 구축, 방산 맞춤형 수출금융지원 등 수출지원기관 간 협업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신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자동차·선박·기계 등의 수출호조와 에너지 가격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로 무역적자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는 수출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12개 분야 중심으로 논의된 세부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내 수출플러스 달성을 위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수출현장 지원단, 해외인증지원단 등을 통해 마케팅·인증·물류 등 수출 현장 애로 신속 해결에 나서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장성 황룡위탁영농법인 콩 생산단지 /전남도청

수입의존도 높은 전략 농산물 해외확보량 600만t까지 확대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 발표

농식품부, 5개 품목 취급 社 선정
자원 개발면적도 50만ha 확대

정부가 밀, 콩, 옥수수, 오일팜(식용유), 카사바(전분)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전략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해외확보량을 600만톤까지 늘린다. 해외농업자원 개발면적도 50만헥타아르(ha)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2023-2027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5년 동안의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은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을 지원하고 농업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국제 식량 위기 등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5개 전략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국내 수요처 확보를 지원키로 했다. 이를 통한 품목의 해외 확보량을 2021년 208만톤에서 2027년 600만톤으로 늘릴 방침이다. 해외농업자원 개발 면적 또한 같은 기간 29만ha에서 50만ha로 확대한다.

전쟁,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수출제한과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지역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기존 연해주, 동남아 위주 진출에서 미주, 독립국가연합(CIS), 오세아니아 등을 거점지역으로 추가 발굴한다. 곡물 등 전략품목 분야에는 대기업 진출을 유도하여 생산·유통·가공 모든 과정에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투자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과수, 원예, 축산 분야는 중소기업의 진출을 우선 지원한다.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현지 정착을 우선하고, 기업 성장에 따라 전략품목 분야로 진출하도록 육성한다.

비상사태 시 해외확보 농산물의 원활한 국내 반입을 위해 해외농업기업의 손실을 보상하고 관련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법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이밖에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센터)와 협조하여 현지 농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정 영농기술을 해외농업 기업에게 전수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지 진출기업의 영농현장 실습, 현지 사전조사, 컨설팅 지원과 현지 법률·제도, 정책, 시장 현황, 성공사례·애로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제4차 종합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의 세부 방안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상근 기자 skc8472@

우리금융연구소, 韓 경제성장률 전망 0.2%p 하향 조정

2분기엔 성장률 0.6%로 개선 전망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5%로 0.2%포인트(p) 내린다고 3일 밝혔다.

연구소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적, 최근 중국 실물지표, 연구소 자체 경제전망모형(WQPM)의 추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월에는 올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제시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조정하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한 점을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연구소는 "수정 전망치(1.5%)는 지난달 IMF가 발표한 1.5%, 한국은행이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6% 하회를 예상한 것과 비슷하나 시장컨센서스(1.3%)보다는 높은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1분기 0.3%에 그쳤던 성장률이 2분기에는 0.6%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에도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민간소비는 마스크 의무해제에 따른 대면 서비스 소비 회복, 5~6월 휴일 효과, 해외여행 수요에 힘입어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국내 경제는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설비투자·건설투자가 미약하게나마 증가세로 전환하겠으나 반도체 등 IT부문을 중심으로 수출이 부진해 성장률이 지난해(2.6%)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상반기(전년 동기비 0.8%)에는 통화긴축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 반도체 경기 악화에 따른 투자 축소 등으로 부진하겠으나 하반기(2.2%)로 갈수록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가시화되고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되면서 성장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아시아개발은행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기획재정부·수출입銀 등
국내 기업 수주지원 목적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함께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 프로젝트 플라자'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ADB 프로젝트 플라자는 우리기업의 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한 행사로 3일은 ADB 프로젝트 수주정보와 전략 공유를, 4일은 해외 발주처 초청 상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3일 설명회에는 ADB관계자, 해외 발주처 및 국내 관련기관 및 기업인 등 150여명이 모여 해외 인프라개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소진공, 소공인·전통시장과 '동행축제' 함께한다

8개 O2O플랫폼서 기획전 등 펼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내수 진작을 위한 '동행축제' 성공 개최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소진공은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에 ▲O2O플랫폼 ▲소공인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소상공인협동조합 ▲상권활성화 구역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과 함께 참여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소진공은 O2O플랫폼 진출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배달의민족, 카카오, 요기요, OK캐쉬백, K-딜(deal), 지그재그, 숨고, 토마토·우리동네장보기 등 8개 플랫폼과 협력해 동행축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4720개사의 제품을 기획전, 할인쿠폰, 홍보·마케팅, 이벤트방식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에 참여한 253개사의 제품은 우체국쇼핑, 네이버, 롯데온, 티몬, 위메프 등 온라인 유통플랫폼에서 동행축제기간 특별기획전과 이벤트, 쿠폰, 홍보 등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구매할 수 있다.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과 연계한 행사도 진행한다. 구매인증 이벤트를 통해 300여명에게 에어팟, 치킨교환권, 커피교환권을 제공하고 신한카드 연계 소비지원금 행사를 통해 10% 청구할인 쿠폰 3만매, 50명을 추첨해 2만포인트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협동조합 제품은 온라인 특별기획관과 특별할인전으로 만나볼 수 있다. 위메프, 11번가, 쿠팡, 지마켓, 옥션, 우체국쇼핑에서 소상공인협동조합 53개사의 제품을 동행축제 집중 기간인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30% 할인 판매한다.

또 상권활성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구칠성상권 등 전국 17곳 상권에선 문화공연, 구매고객 대상 경품행사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런 가운데 온누리상품권은 월 할인 구매 한도가 지류 100만원, 충전식 카드형과 모바일이 150만원까지 확대해 판매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금융위, 금감원 부원장에 김미영 임명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김미영 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사진)가 임명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2023년 제1차 임시회의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에 따라 김 부원장보를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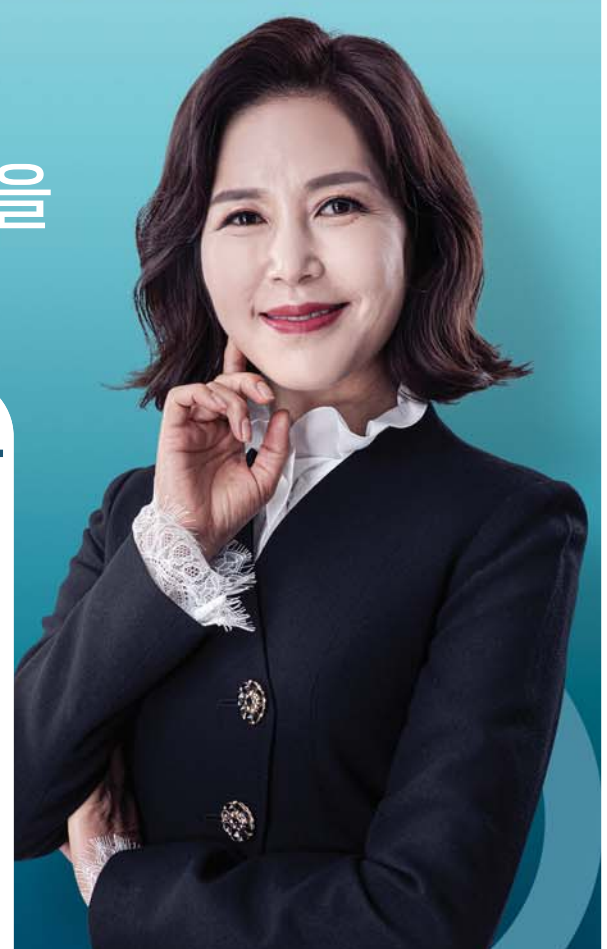
김 부원장은 서울여상을 졸업하고 1985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뒤 1990년 동국대를 졸업했다. 1999년부터 금감원에서 일한 김 부원장보는 은행준법검사국 팀장, 자금세탁방지실장, 여신금융검사국장, 불법금융대응단 국장을 거쳐 2021년 부원장보를 맡았다.

김 부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오는 2026년 5월까지다. /나유리 기자

Since 1996
(온·오프라인 결합매장)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사업자 모집!!

27년 전통의 대한홍삼(주)에서
건강사업 성공의 핵심적인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 **다양하고 획기적인 제품(기능 · 이윤)군**
- **온라인 판매 마케팅 솔루션 지원**
  - · 웹카탈로그 제공
  - · 고객전용 복지몰 제공
- **맞춤형 창업 및 판매노하우 교육**
- **홍보 지원 (TV광고 등)**

Since 1996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 취급상품
- · 다양한 브랜드 홍삼
-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의류 / 화장품

⊙ 온라인 [웹카탈로그] 제공
- · 매장과 소비자 간 견적 딜 시스템
- · 영업사원 관리 및 고객 홍보 시스템

⊙ 온라인 [고객전용 복지몰] 제공
- · 11만 여 개의 인기 & 특가상품

창업 안내

⊙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창업 (매장, 영업장, 센터)

⊙ 무점포 · 무자본 창업

⊙ 웹카탈로그 · 복지몰 창업

창업 비용

업계 최저 창업비
+ 최대 혜택

상담신청 홈페이지

www.koreahongsam.co.kr

30년 역사 햇터그룹

BH 대한홍삼[주] 브레인TV (주)햇터라이프 (주)한삼장홍삼

문의 : 02.2163.0411
대한홍삼(주) 최원석
010.2286.5687

포스코퓨처엠, 전구체·음극재 생산 확대… 포항에 1.7조 투자

화유코발트·경북도·포항 공동
전구체 생산비율 14% → 73%
음극재 8만여t → 32만t 확대

박용선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왼쪽부터),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김준형 포스코퓨처엠 사장, 천 쉬에화 화유코발트 동사장, 이강덕 포항시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이 3일 이차전지소재사업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옛 포스코케미칼)이 포항에 총 1조7000억원을 투자해 양극재용 전구체와 음극재 생산능력 확대에 나선다.

포스코퓨처엠은 3일 화유코발트, 경상북도, 포항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극재 중간소재인 전구체와 음극재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포스코퓨처엠은 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 기업인 화유코발트와 합작사를 설립하고 약 1조2000억원을 투자해 배터리용 양극재의 중간소재인 전구체와 고순도 니켈 원료 생산라인을 건설한다. 공장은 2027년까지 포항 블루밸리산단 내 26만7702㎡ (약 8만평) 부지에 들어선다.

전구체는 니켈·코발트·망간 등의 원료를 가공해 제조하는 양극재의 중간소재로 국내 생산비중이 약 13%에 불과하다. K-배터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 생산능력 확대가 필수다. 배터리 에너지 저장 밀도를 결정하는 니켈 역시 전구체 원료 중 사용 비중이 가장 높아 내재화가 중요하다.

포스코퓨처엠은 원료 조달에 강점이 있는 화유코발트와의 니켈·전구체 투자로 포항 영일만 일반산업단지에 건설 중인 연산 10만6000톤 규모의 양극재 생산기지와 연계한 '니켈-전구체-양극재 밸류체인 클러스터'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품질의 원료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확보해 배터리소재 사업의 수익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연산 10만5000톤의 양극재 글로벌 양산능력을 2030년까지 61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인 포스코퓨처엠은 전구체도 연산 1만5000톤에서 44만톤으로 확대해 전구체의 자체 생산비율을 14%에서 73%까지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포스코퓨처엠은 약 5000억원을 투자해 포항에 음극재 생산공장 추가 건설도 추진한다. 포항 블루밸리산단 내 19만9720㎡(약 6만평) 부지에 2025년까지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음극재는 배터리 수명과 충전성능 등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다. 포스코퓨처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흑연계 음극재를 양산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현재 세종에서 7만4000톤의 천연흑연, 포항에서 8000톤의 인조흑연 음극재를 양산하고 있으며,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음극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 생산능력을 2030년 32만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차 고성능화에 발맞춰 소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해 흑연계 뿐만 아니라 충전성능 향상 등에 필요한 실리콘·전고체 배터리용 리튬메탈 음극재까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해남군, 영산강 Ⅲ-2지구 33년 만에 간척산업 마침표

총 면적 126만 4000㎡ 등록
약 6775만㎡ 공유수면매립 완료

해남군은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이 이루어진 영산강 Ⅲ-2지구에 대한 지적확정 측량을 완료하고, 토지대장에 신규 등록했다.

이번에 등록한 토지는 산이면 부동리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들녘 농지 67필지 100만9,382㎡와 도로, 제방 등 공공용지 55필지 25만 5,050㎡로 총 면적은 126만 4,000㎡이다.

특히 1989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경지 조성 및 식량증산을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 인가를 받아 실시한 6,774만 9,000㎡에 대해 33년만에 간척사업을 완료하고 토지대장에 등록함으로써 사업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이번 토지대장 등록으로 해남군 토지 통계는 44만 3,556필지 1,045㎢로 전년 대비 면적이 증가하면서 전남 최대 면적의 타이틀을 확고히 하고 있다. 농 지면적도 358㎢ 로 크게 늘어나 교부금 지원기준 등 각종 면적 통계 및 정책 자료에 활용돼 전국 최대 농업군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이번 토지대장 등록 완료로 토지 소재지, 지번, 면적을 확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신뢰할 수 있는 지적공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남해군, 국가산단 오염 피해 대응한다

광양만권 대기오염 대응 실무협의체
정례화·도민 권익보호 계획

광양·여수 국가산단 등의 오염 원인 배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남해군·하동군 등 주민들을 비롯해 경남도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가 본격 운영된다.

남해군에 따르면, 국가산단 주변 주민들의 대기오염 피해에 따른 환경관리 및 대응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민간단체 행정지원 및 타 광역지자체와의 연계 협력을 위한 '광양만권 대기오염물질 대응 실무협의체'가 열렸다.

회의 참석자들은 실무협의체 회의 정례화, 실무위원 추가 구성, 경남 거버넌스 관련 논의, 전국단위 공동대응을 위한 제안 등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특히 남해군 대기오염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유사 피해를 호소 중인 전국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가칭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힘을 기울이기로 결정했다.

정병희 경상남도 기후대기과장은 모두발언에서 "경남도·사천·남해·하동이 포함된 실무협의체 회의를 앞으로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등 정례화할 계획"이라며 "제안된 건의사항을 환경부에 요청하고, 도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관련자료 축적 및 요구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니 의견수렴의 창구로 실무협의체를 잘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남해(경남)=이도식 기자

경주시, 황성공원 무허가 포장마차 철거

지속 지도 점검·예찰 활동 이어가

경주시는 지난 2일 황성공원 내 시립도서관 주차장과 충혼탑 진입로 주차장 등을 오랜 기간 무단 점유해 온 포장마차 5곳과 커피 판매대 1곳이 모두 자진 철거됐다.

이들 무허가 노점상들은 황성공원 주차공간에서 간이 테이블을 가져다 놓고 파전과 막걸리 등을 팔며 10여 년간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주차장 내 차량 간 접촉 사고와 보행자 사고 위험은 물론 노점상이 식품위생법 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먹거리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주시는 지난 3월부터 시민들의 민원을 접수해 도시공원과, 식품안전과, 주택과 등과 합동으로 현장 계도에 나섰다. 시는 무허가 노점상들을 상대로 계고장을 보내며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

경주 황성공원 내 무허가 포장마차 철거 전후 사진.

노점상들이 영업을 재개할 수 없도록 단속인력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예찰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

목포시, 청년 겨냥 글로벌 마케팅 박차

미디어 촬영 쇄도… 쾌거 이루기도
日 겨냥한 KCON 행사 참가 예정

목포시가 청년이 찾는 큰 목포 시정 슬로건 아래, 청년을 겨냥한 글로벌 도시브랜드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 일상회복 이후 본격적인 국제관광 재개에 맞춰 시는 적극적인 글로벌 홍보마케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트렌드에 적절한 마케팅은 관광객들의 목포 방문을 유인하고 있으며 목포를 배경으로 한 미디어 매체 촬영 섭외·지원 등 문의가 지속적으로 쇄도하고 있다.

또한 시는 자체 제작 웹드라마 '어느날 소나기'가 오는 5일 개최되는 LA웹페스트에서 5개 부문 수상 후보로 공식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남 방문의 해 서울페스티벌에 참여해 관광 홍보 부스 운영 등 다양한 맞춤형 관광콘텐츠를 방문객에게 소개해 목포의 매력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또한, 전남도와의 협약으로 전세기로 무안국제공항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들도 목포를 방문하고 있다.

지금까지 태국과 베트남 관광객은 현재까지 1,200여명이 넘게 다녀갔고, 올 한해 동안 베트남 나트랑, 하노이, 호치민에서 전세기로 1만여 명이 전남을 방문할 예정이다.

5월에는 K-문화 콘텐츠 수요가 높은 일본 젊은 층을 겨냥한 KCON 2023 JAPAN 행사 참가도 예정돼 있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지역 이모저모

울산시

'부모부담 경비' 지원

울산시가 오는 9월부터 유아의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부모부담 경비'를 우선 지원한다.

울산시는 어린이집 유형(국공립, 민간·가정)이나 부모의 재산 및 소득에 관계없이 아동 1인당 월 최대 14만 원(연 168만 원)까지다.

사업비는 2023년 14억 원, 2024년 84억 원, 2025년 141억 원이며 울산시와 5개 구·군이 협의해 분담한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대전시

지역소주에 대덕특구 홍보

대전시가 지역 소주인 '이제우린' 40만 병에 대덕특구 50주년 홍보 문구를 넣는다.

"초일류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이 만듭니다"라는 응원 메시지는 대전시와 맥키스컴퍼니는 대전시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을 맞아 시와 대전의 향토 주류기업 맥키스컴퍼니가 2일 '이제우린 보조상표 후원식'을 열었다.

이장우 시장은 "맥키스컴퍼니는 대전시의 중요한 상생협력 파트너로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선도 기업"이라며 "홍보 후원을 통해 대덕특구 50년에 대한 시민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원승일 기자 won@

신안군

'신안 피아노 연주회' 개최

신안군이 오는 12일 자은면 다목적회관에서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신안 피아노 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자은면 다목적회관 준공을 기념하고 10월 피아노 축제 중간에 '피아노의 섬'을 알리는 첫 공연이다. 쇼팽의 음악이 흐르는 폴란드의 '국립 쇼팽 음악 대학'을 수석 졸업한 피아니스트 아그니에슈카 프제미크 브리와의 피아노 연주, 바이올린의 다카시 하마노, 국내 정상급 테너 최승원과 소프라노의 김아람, 김자영 피아노 연주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다.

/신안(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거창군

스마트팜 신·개축 지원자 모집

거창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2024~2025년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지원사업은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 수요가 연중 발생함에 따라 자동·원격 환경 제어가 가능한 ICT 기술도입 필요성의 증가로 시설원예분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합환경제어시설, ICT 융복합 기술 연계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경질판) 자동화비닐온실 신·개축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원예특작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거창(경남)=이도식 기자

e커머스, 세차·차박텐트 등 용품 넘어 신형車까지 판매

車·차량용품 온라인거래 16.4%↑
쿠팡 14일까지 최대 70% 빅세일
G마켓 캐스퍼 신규트림 판매도

경북 구미시 낙동강체육공원에서 캠퍼들이 텐트를 치고 캠핑을 즐기고 있다. 나들이철을 맞아 자동차 용품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e커머스들도 프로모션에 나섰다. /뉴시스

일 년 중 가장 나들이가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는 5월, e커머스 업계가 자동차 관련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업체들이 이 같은 프로모션을 하는 것은 자동차 상품군의 온라인 거래액이 매년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의 온라인 거래액은 3조96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4% 늘었다.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 상품 구매는 장기화 하는 경기 불황과 관련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지난 1월 자동차 관련 정기 프로모션을 론칭한 G마켓 자동차팀의 박중근 매니저는 "고물가 시대에 직접 자동차 관리를 하는 알뜰 고객이 늘고 있어 올해 초부터 매월 자동차 전문관을 열고 있다"고 밝혔다.

캠핑 유행도 자동차 용품의 온라인 구매를 늘린다는 주장이 있다. 위메프에 따르면 본격적인 봄이 시작한 3월에서 4월 사이 캠핑용품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늘어난 가운데 '차박' 관련 용품 매출도 일제히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박은 텐트 대신 자동차를 활용하는 방식의 캠핑으로, 이동이 편리하고 숙박지 선정에 비교적 자유로워 중대형차를 가진 이들을 중심으로 흥행하고 있다. 해당 기간 위메프에서는 차량 트렁크에 간단하게 연결하는 도킹텐트와 좌석 평탄화 작업을 위한 차박매트의 매출이 각각 74%, 44% 증가했다.

쿠팡은 14일까지 자동차용품을 최대 70% 할인하는 '자동차용품 페어 빅 세일'을 진행한다. 불스원, 소낙스, 더클래스, 지오바니, 대한, 지엠지모터스, 로드몬스터 등 40여개 브랜드의 5300여개 상품을 할인한다.

황사, 미세먼지, 잦은 야외활동 등으로 셀프 세차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즌인 점을 감안해 기획전 내에 '셀프 세차 용품 특가전'도 마련했다. 세차 초보를 위한 초보8종(바스, 스펀지, 버킷, 디테일러, 타월 3종 등)으로 구성된 세트 상품 등을 만날 수 있다. 쇼핑 편의를 위해 할인쿠폰이 적용되는 상품만 모아볼 수 있는 탭도 별도로 준비했다.

G마켓은 7일까지 현대자동차 캐스퍼 신규 트림 출시를 맞아 단독 이벤트를 진행한다. 캐스퍼 신규 트림 '디 에센셜 라이트'는 경형 SUV로, 실용적인 사양으로 최적의 조합을 찾아 1400만원대로 구성됐다.

G마켓은 캐스퍼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선착순 1000명에 8시간 무료 시승권도 제공한다. 캐스퍼 자동차에 어울리는 차량용품 및 차박 캠핑용품을 모아 할인 판매하는 연관 기획전도 마련했다. ▲브루클린웍스 ▲아이로드 ▲모토벨로 등의 브랜드가 참여하며, 최대 60% 할인된 제품을 선보인다.

한편,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도 전국 5개점(강서점/부천상동점/대전유성점/김해점/원주점)에서 5월 한 달 간 캐스퍼 쇼룸을 운영한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직장인 에너지 충전 '활기력' 선물하세요"

정관장, 6년근 홍삼농축액 바탕에
생강·대추 등 넣은 앰플형 드링크
꽃길만 걷자·월요병 극복 메시지도

활기력 부스터 /KGC인삼공사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간편함에 재미 요소까지 더한 '정관장 활기력'이 인기 선물 중 하나로 떠올랐다.

2007년 출시되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정관장 활기력(20㎖)'은 6년근 홍삼농축액에 생강, 대추, 구기자, 오미자, 황기 등 전통소재와 비타민 B, C를 배합한 앰플형 건강 드링크로 한 병 섭취만으로 간편하게 기력을 보충할 수 있다.

'정관장 활기력 에너지박스'는 '정관장 활기력(20㎖)'을 20병으로 리패키징한 카카오톡 선물하기 전용 제품이다. 워킹데이를 기준으로 하루 1병씩 직장인들의 한달 에너지 충전을 책임진다.

'일상 속 에너지 충전' 콘셉트를 제품 디자인에 반영했고, 패키지 내부에 "꽃길만 걷자", "월요병 극복" 등 10종의 응원 메시지를 담아 'FUN 요소'를 결합, SNS 소통방식에 익숙한 MZ세대 직장인의 건강 선물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자몽허니맛의 '정관장 활기력 조이(JOY)'도 있다. 활기력에 자몽농축액과 벌꿀로 맛을 더한 자몽허니맛 홍삼제품이다. 기존 활기력에 카페음료나 과일청 등으로 2030세대에게 사랑받아온 자몽허니맛을 더해 상큼한 풍미를 구현해 낸 것이 특징이다.

여행 수요 증가에 맞춰 선보인 면세점 전용 제품도 있다. '정관장 활기력 에너지 캐리어'다. 지치지 않는 여행을 위한 필수 템이란 콘셉트로, 여행용 캐리어를 연상시키는 재치 있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제품과 함께 동봉된 활기력 데코스티커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캐리어, 틴케이스, 휴대폰 케이스 등 다양한 소품을 자유롭게 꾸미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또 '활기력'을 다 섭취하고 남은 패키지는 기념품 보관함, 수납함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최근 정관장은 6년근 홍삼에 12종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활기력 부스터 박스'를 카카오 선물하기 전용 제품으로 선보였다. 기존 활기력에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 100%의 비타민 B1, B2, B6, C, K, 엽산, 셀렌, 구리, 망간, 판토텐산, 아연, 나이아신 12종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추가해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를 한번에 충전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다.

한편, KGC인삼공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당신' 프로모션을 오는 5월 14일까지 진행한다. 가족과 지인에게 선물하기 좋은 다양한 '다보록' 선물세트를 비롯하여 '홍삼정 에브리타임', '홍삼톤', '화애락', '홍천웅', '아이패스' 등의 인기 제품과 '천녹', '황진단' 등의 프리미엄 제품까지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하이트진로, 스타트업 10곳 '데모데이'

우수기업 투자·팁스 연계 진행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가 데모데이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는 자연기반 투자연계형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한 농수산 분야 스타트업 10개사와 투자사를 초청하여 데모데이(스타트업이 사업모델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전날 서울 안다즈 강남에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를 비롯해 스타트업 10개사와 투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개 모집한 자연기반 프로그램에는 총 163개 업체가 지원했다. 자연기반은 농·수산분야 밸류체인에 대한 혁신 기술과 발전 전략을 가진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고 최종 투자까지 이어지는 민관 협업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이 중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농식품분야 6개 업체, 수산분야 4개 업체를 최종 선정해 이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데모데이에는 농식품 및 수산 펀드를 보유한 투자기관과의 회의도 함께 이루어져 투자 유치 기회도 주어졌다. 투자 적절 기업은 검증을 통해 최종 투자 및 팁스(TIPS,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연계도 진행된다.

/신원선 기자

갤러리아百 전 지점서 '가정의달' 프로모션

갤러리아백화점이 전 지점에서 가정의 달 맞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각 지점별 행사 일정은 상이하다.

서울 명품관은 14일까지 웨스트관 5층에서 유아동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어린이날을 맞아 해외 프리미엄 키즈 브랜드 편집숍 '오미스터래빗'에서는 다양한 유·아동복 상품을 판매한다. 완구 편집숍 '인더스토리' 팝업에서는 ▲독일 피규어 브랜드 '플레이모빌' ▲스웨덴 프리미엄 토이 브랜드 '브리오' 등을 선보인다.

7일까지 웨스트관 3층에서는 럭셔리 슈즈존 그랜드 오픈 기념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프로모션 기간 중 신발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신발 케어숍 '슈블루'에서 신발 밑창 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전 타임월드에서는 11일까지 '안마의자 및 온열 치료기 특집전'을 진행한다. 의료가전 또는 안마의자 반납시 구매 금액에서 차감되는 보상 판매 서비스와 일부 상품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4일에는 중부권 최대 규모의 나이키 매장도 새롭게 선보인다. 신규 오픈을 기념해 4일부터 5일까지 나이키 한정 상품을 발매하며 1인 1족에 한해 구매 가능하다. 신상품 최대 20% 할인과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사은품도 증정한다.

수원 광교에서는 4일부터 7일까지 수원컨벤션 열린광장에서 '인기 상품 이월/기획 특가전'이 진행된다. 남성의류, 골프의류, 아동복 등 18개 브랜드에서 최대 8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

KCG인삼공사, 세계 귀빈에 '정관장' 선물

ADB연차총회에 동인비·홍삼정 지원

KGC인삼공사는 전 세계 귀빈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 행사 참가자들에게 정관장을 선물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2일부터 5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진행되는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하는 60여개국 회원국 거버너(회원국 대표) 및 ADB 이사진 등 관광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홍삼오일로 완성한 듀얼 안티에이징 뷰티 브랜드 '동인비'와 '정관장 홍삼정' 선물이 주어진다.

앞서 KGC인삼공사는 지난 달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기획재정부 ADB 연차총회 준비기획단과 제56차 ADB 연차총회에 정관장 제품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각국 거버너에게 전달되는 선물은 '동인비 자생 원액 에센스'와 '동인비 자생 크림'으로 구성된 '동인비 자생스페셜 기획세트'다. 이에 전 세계 60여개국 고위급 인사들은 대한민국 대표 홍삼 브랜드 정관장의 화장품과 홍삼제품을 통해 왜 정관장이 한국에서 선물로 인기가 높은지 직접 경험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위메프-LG생활건강

오늘 '슈퍼 위메프데이'

위메프가 LG생활건강과 '슈퍼 위메프데이' 프로모션을 4일 하루 동안 진행한다.

엘라스틴·홈스타·페리오 등 LG생활건강 대표 상품을 최대 49% 할인 판매한다. 구매 금액대별 사은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3만·7만5000원 이상 구매 시 각각 스타벅스 기프티콘과 고급 폴딩 카트를 증정한다.

/김서현 기자

관광객 많이 오면 뭐하나… 화장품업, 1분기 영업익 '반토막'

국내 기업들 수익성 전년比 악화
中 소비 회복 악재 등 작용으로
아시아 실적 둔화 매출 하락해
영업익 원가·고정비 증가로 감소

화장품 기업들의 수익성은 전년 대비 악화되면서 실적 부진을 이어갔다.

마스크 해제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 호재에도 화장품 업계는 웃지 못했다. 전반적인 경기 위축과 중국의 소비 회복이 악재로 작용해 올해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는 수모를 겪은 것이다. 실적 회복도 더딜 전망이다.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으로 인한 기대도 하반기로 미뤄진 상태다.

◆1분기 수익성 악화 지속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화장품 기업들의 수익성은 전년 대비 악화되면서 실적 부진을 이어갔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1분기 영업이익이 816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52.3% 줄어들었다고 이날 밝혔다. 매출액은 1조91억원으로 전년 대비 20.1% 감소했다. 특히 해외 부문의 매출 감소가 컸다. 아모레퍼시픽의 해외 사업은 중국 매출 하락에 따른 아시아 실적 둔화로 전년 대비 16.8% 하락한 349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아시아 매출 하락의 여파로 전체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36.9% 감소했다.

주력 계열사 아모레퍼시픽의 국내 사업은 면세 채널의 매출 감소로 전년 대비 24.6% 하락한 552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면세 매출 하락 및 제품 포트폴리오 재정비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도 60.8% 감소했다.

LG생활건강 역시 지난 1분기 매출 1조6837억원에 145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2.4%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9% 줄어들었다.

특히 뷰티 사업 부문의 1분기 영업이익은 11.3% 감소한 61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한 7015억원으로 집계됐다.

회사 측 관계자는 "기저 효과로 면세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을 했으나, 중국 소비 회복 지연으로 중국 매출은 두 자릿수 감소했다"며 "영업이익은 원가 및 고정비 증가로 인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분기도 실적 회복 어렵다

앞날도 밝지 않다. 2분기부터 중국 화장품 시장의 업황 회복이 예상되진 하지만, 그 효과가 한국 기업에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우려가 높다. 영업환경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탓이다.

키움증권 조소정 연구원은 "2분기부터 중국 내 주요 경쟁사들의 마케팅 강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현지 브랜드사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커지고 있다"며 "중국의 소비 정상화 이후 브랜드사간 마케팅 경쟁, 소비자 선호의 불확실성, 정치 리스크 등 영향으로 시장 내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분기로 쏠렸던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하반기로 미뤄질 전망이다.

NH투자증권의 정지윤 연구원은 "중국의 소비 지표가 반등했지만, 화장품 수요는 아직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기저 효과로 인해 LG생활건강의 2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 김명주 연구원은 "아모레퍼시픽의 중국 내 본격적인 마케팅과 예상보다 더딘 면세 매출 회복으로 2분기까지 실적 부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실적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메드팩토, '백토서팁' 골육종 임상 첫 투약

청소년·성인환자 54명 대상 진행
치료목적 단독 투여 후 효과 확인

메드팩토가 미국과 한국에서 진행 중인 골육종 대상 백토서팁 단독요법 임상 1·2상의 첫 환자 투약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메드팩토는 지난해 8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골육종 환자 대상 백토서팁 단독요법에 대한 임상 1·2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 올해 2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도 IND 승인 받은 바 있다.

임상은 재발 난치성 혹은 진행성 골육종을 앓고 있는 14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환자 54명을 대상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진행된다. 메드팩토는 임상에서 백토서팁 단독요법의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평가와 항암 효과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골육종 대상 백토서팁 단독요법은 이미 FDA로부터 치료목적 사용(동정적 사용)승인을 받아 백토서팁을 투여한 환자에게서 치료 효과가 확인된 상태다. 미국에서 호스피스 치료를 받던 골육종 환자는 치료목적 사용으로 지난해 2월 백토서팁을 단독 투여한 후 13개월째 폐와 뇌 전이 없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이 골육종 환자 대상 백토서팁 단독요법은 미FDA로부터 희귀소아질환의 약품(RPDD), 신속 심사제도(패스트트랙) 개발 품목으로도 지정 받은 상태다.

회사측에 따르면 백토서팁 단독요법이 골육종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외에서 병원에서 치료목적 사용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골육종은 한 번의 수술로 종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꾸준한 항암치료로 뼈에 생긴 암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특히 항암치료 중에도 폐와 뇌 등으로 전이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전이 환자의 경우 5년 생존율이 20~30% 수준에 불과하다. 폐와 뇌로 전이되면 사망까지 이르기 때문에 전이 차단만으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이세경 기자

동원F&B, 가정의달 맞아 건강식품 할인전

올리닉·천지인 등 내달 31일까지

동원F&B의 건강기능식품 라인업. /동원F&B

동원F&B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음달 31일까지 각종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올리닉'을 비롯해 홍삼 전문 브랜드 '천지인',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GNC', 이너뷰티 전문 브랜드 '뷰틱' 등 다양한 브랜드의 건강기능식품으로 구성됐다.

동원F&B의 '올리닉 울트라 비타 액션'은 하루 한 병으로 간편하게 섭취하는 고농축 멀티비타민 제품이다. 액상, 캡슐, 정제가 한 병에 담겨 있는 올인원 형태로 물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섭취할 수 있다.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표 영양소인 아연을 비롯해 비타민B, C, D와 각종 미네랄 등 21가지 필수 영양소가 들어 있다. 여기에 11종의 채소 혼합농축액 분말과 15종의 발효효소분말 등 현대인에게 필요한 유효 성분이 골고루 담겨 있어 면역 기능은 물론 균형 잡힌 영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홍삼 브랜드 '천지인'은 '흑삼정 데일리원', '홍삼녹용 침향환' 등 프리미엄 제품에 주력한다. '흑삼정 데일리원'은 9번 찌고 9번 말리는 구증구포(九蒸九曝)공법으로 추출한 흑삼 농축액을 함유한 제품으로 체내 흡수율을 높이고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고급스러운 선물로는 '홍삼녹용 침향환'이 안성맞춤이다. 세계 3대 향 중 하나인 침향을 비롯해 6년근 홍삼, 녹용 등 주요 성분을 50% 이상 함유하고 있으며, 11가지 국내산 약재가 들어있다.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GNC'는 프리미엄 오메가3 제품인 '아쿠아셀 알티지 오메가3 플러스 디' 등을 선보인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애경, 투명·보송한 피부 '루나 컴피 클리어 파우더'

애경산업의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루나'(LUNA)에서 하루 종일 투명하고 보송한 피부로 가꿔주는 '컴피 클리어 파우더'를 출시했다.

루나 컴피 클리어 파우더는 땀과 피지 분비가 활성화되기 쉬운 계절을 대비해 모공은 답답함 없이 메꿔주고 피부의 번들거리는 유분기를 잡아 보송한 피부 결을 유지해주는 파우더이다.

베이스 메이크업이 뭉치거나 밀림없이 오랜 시간 유지될 수 있도록 메이크업의 밀착력을 높여주며, 투명하고 가벼운 작은 입자의 파우더를 적용해 피부 답답함 없이 뽀얗고 매끈한 피부를 완성해준다. 민감한 피부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했다.

/이세경 기자

광동제약, '비타500 제로 르세라핌 에디션'

오는 9월까지 한정 판매

광동제약은 소비자들의 요청에 따라 '비타500 제로 르세라핌 팝아트 에디션'을 오는 9월까지 한정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광동제약은 지난 3월 신제품 '비타500 제로'의 광고 모델로 르세라핌을 발탁한 바 있다. 이후 르세라핌의 이미지가 담긴 에디션 출시 요청이 잇따르자, 광동제약은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한정판 제품을 선보였다.

에디션은 광동제약 F&B 전용몰 '광동상회'에서 5월 3일부터 선판매되며, 1병당 멤버 1인의 모습이 새겨진 형태로 제작됐다. 인물을 컬러풀한 팝아트로 표현해 세련된 감성을 완성한 것이 특징이다. 10입·20입 박스 포장에는 팀 전원이 함께한 이미지가 인쇄됐다.

뿐만 아니라 광동제약은 팬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섬세한 디자인

을 적용했다. 멤버별 이미지에 어울리는 컬러를 라벨에 담았으며, 총 5개의 낱병 에디션을 수집하면 르세라핌 영문 그룹명이 완성되는 재미 요소도 부여했다.

광동제약은 에디션 구매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행운 가드득 이벤트'를 진행한다. 비타500 제로 10입 상단 면에 인쇄된 8자리 번호를 이벤트 페이지에 입력하면 추첨을 통해 안마의자, 로봇청소기 등 푸짐한 상품과 스페셜 경품인 르세라핌 정규 1집 'UNFORGIVEN' 친필사인 CD를 증정한다.

/이세경 기자

동아제약, '노스카나겔' 패키지 리뉴얼

라미네이트 튜브로 용기 변경도

동아제약은 여드름 흉터 치료제 '노스카나겔'의 발매 10년만을 맞아 패키지 리뉴얼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제품 패키지에는 점점 옅어지는 피부 흉터를 연상시키는 그래픽 디자인을 적용했다.

또 제품 용기는 라미네이트 튜브로 변경해 용기의 변형없이 내용물을 적당량 도포하여 소비자들이 더욱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첨가제에서 착색개선 효능이 있는 비타민B3, 비타민E를 추가해 성분을 보강했다.

노스카나겔은 2013년 출시 이후 국내 여드름 흉터 치료제(알란토인, 덱스판테놀, 헤파린 동일 성분) 카테고리에서 현재까지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노스카나겔은 피부를 습윤하게 하여 흉터를 재생시키는 헤파린나트륨, 알란토인, 덱스판테놀 3중 복합성분을 함유한 흉터치료제로 1일 수회, 수시로 도포해 그냥 두면 짙어질 수 있는 흉터를 치료해주는 제품이다.

/이세경 기자

유한양행

우리 가족 모두 **마그네슘 충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정의 달 5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마그비®스피드액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한 근육경련 | 육체피로 | 체력저하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액 Double Action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광고심의필 : 2023-1668-002201

LG U+, 강릉산불 피해 청소년에 노트북 전달

LG유플러스가 강릉교육지원청, 대한적십자사와 손잡고 강릉 산불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에게 학습용 노트북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열린 노트북 전달식에서 (오른쪽부터) LG유플러스 김영후 강원지사장, 강릉교육지원청 정태범 교육장,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회 유지숙 영동지역회장,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 방천기 영동봉사관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일동제약그룹, 창립 82주년 기념식 거행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을 비롯한 일동제약그룹 회사들이 3일 서울 서초구 일동제약 본사에서 창립 82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임직원들은 '모든 의약품의 근본은 사람이다'라는 고(故)윤용구 회장의 창업 정신을 되새기며 애사심을 고취하고 구성원 간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박대창 일동홀딩스 부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일동제약그룹

제주항공, '안전보건경영 선포식' 개최

제주항공은 3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제주항공 서울지사에서 '안전보건경영 선포식'을 진행했다. 제주항공은 이번 안전보건실천 결의 선서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의지를 표명했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사진 왼쪽에서 2번째)가 직원들과 안전보건실천 결의 선서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항공

도미노피자, 서울대어린이병원 1억 기부

도미노피자는 어린이날을 앞둔 2일 서울대어린이병원에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 전달은 도미노피자의 희망 나눔 캠페인을 통한 적립금과 임직원들의 기부로 조성된 희망 나눔 기금을 통해 마련되었다. 한국도미노피자 오광현 회장(좌측)과 서울대학교병원 김영태 병원장(우측)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도미노피자

인천공항公, '위험성평가 경진대회' 시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으로 인천공항 내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일 공사 회의실에서 '2023년 인천공항 위험성평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경용 안전보안본부장(사진 왼쪽에서 일곱 번 째)과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환우 손 잡고 놀이기구 '고고싱'… 재미·추억 나눠

르포 | 아이엠아이 '다같이 놀자 프로젝트' 참여해보니

지난달 26일 용인 애버랜드 정문 앞에 아이엠아이 직원들과 뇌성마비 장애아동 10명이 한데 모였다. 유난히도 매서운 바람으로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전전긍긍 기상청 날씨만 검색했던 아이엠아이 직원들의 걱정이 무안해질 정도로 아이들의 얼굴은 설레임으로 가득차 있었다.

'재미 전파' 이색 ESG 경영 활동
임직원들 환우 함께 애버랜드 투어
"즐겁게 노는 모습에 뿌듯함 느껴"

날씨가 문제겠냐. 중·꺾·마(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뇌성마비 장애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추억을 선사하기 위한 아이엠아이의 하루가 시작됐다.

아이엠아이(구 아에텍매니아)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선보인 '다같이놀자 프로젝트'는 문화체험 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재미'를 다양한 방법으로 선사하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보다 능동적인 ESG 활동을 지향하는 아이엠아이는 그 어느 때 보다 올해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해 고민했다. 선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용인 애버랜드 정문에서 아이들을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아이들은 서울시립뇌성마비 복지관의 버스에서 차례대로 승강기를 통해 하차했다. 이후 아이엠아이 임직원 25명의 봉사단과 아이들은 2대1로 조를 짜지어 이동했다.

기자는 아이엠 직원과 함께 김사연(가명)군과 매칭됐다. 김 사연 군은 처음보는 기자에게도 살갑게 인사를 건넸다. 애교와 웃음이 많은 아이였다. 아이엠아이가 2~3명씩 짝을 지은대는 이유가 있었다. 어플 담당과 안전관리담당자로 역할을 나누기 위해서다.

어플 담당을 맡게된 기자는 김사연 군을 장애 유형별로 요청하고 기다리지 않고 기구를 탈 수 있는 프리패스로 등록했다. 시간이 없었다. 아이에게 가장 많은 놀이기구를 태워주고 싶었고, 다양한 추억을 선물하고 싶었다. 놀이기구 프리패스는 중복 불가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했다. 가장 가깝고 보다 안전한 놀이기구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놀이기구 앞에서 예약한 QR코드를 보여주고 다른 아이들 보다 먼저 놀이기구에 탑승할 수 있었다. 아이엠아이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김 군을 직접 안아서 모든 놀이기구에 탑승 시켰다. 체격이 왜소한 김 군은 애버랜드 직원들과의 적극적인 호흡으로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었다.

취재단과 아이엠아이 직원이 아이를 놀이기구에 탑승시키고 있다

아이엠아이 직원이 김 사연군을 안고 놀이기구로 향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김군은 나들이가 끝날 때 쯤 "아빠, 엄마에게 오늘 했던 활동들에 대해 자랑하고 싶다"며 연신 씩씩한 모습을 보였다. "여름에 또 재미있는 활동을 하자"는 질문에 김 군은 "꼭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환하게 웃었다.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의 에버랜드 나들이를 함께한 아이엠아이 직원은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강상 이유 때문에 봉사활동 기획이 쉽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라며 "그래도 아동 및 청소년들이 즐겁게 놀고 행복해하는 모습에 뿌듯함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대한항공,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래핑' 항공기 공개

걸그룹 '블랙핑크' 이미지 담아
조원태 회장 "홍보대사 역할 수행"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염원 담은 대한항공 래핑 항공기가 이륙합니다."

대한항공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염원을 담은 '래핑' 항공기를 공개했다.

대한항공은 3일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격납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최태원 공동유치위원장, 장성민 대통령비서실 미래전략기획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30부산세계박람회 대한항공 특별기 공개행사'를 열었다.

대한항공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보잉777-300ER 항공기를 동원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걸그룹 블랙핑크 이미지를 항공기에 입혔다. 이 래핑 항공기는 오는 4일 인천발 파리행 KE 901편을 시작으로 전 세계 하늘을 누비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맡는다.

유종석 대한항공 Operation부문 부사장(왼쪽 두번째부터),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2030 부산세계박람회 공동유치위원장,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이경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지원단장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래핑 항공기 앞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은 "대한민국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편 새 도약의 기회가 될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영광"이라며 "대한항공은 글로벌 항공사로서 네트워크를 활용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홍보대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대동

'오늘과 내일의 농업' 이벤트

대동이 5월을 맞아 자녀와 부모가 농업의 현재를 체험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오늘과 내일의 농업' 이벤트를 진행한다.

3일 대동에 따르면 경기 수원에 위치한 국립농업박물관에서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이번 오프라인 행사는 ▲ '오늘은 내가 농부' ▲ '미래농업 알록달록 색칠하기' 를 진행한다. /김승호 기자 bada@

SK이노, '그린픽쳐' 캠페인 전개

탄소감축 비전, 실행의지 표현

SK이노베이션이 새로운 60년의 시작과 올 타임 넷제로(All Time Net Zero) 실행 원년을 맞아 넷제로 달성 의지를 담은 새 브랜드 캠페인을 선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SK이노베이션 계열의 탄소 감축 비전과 실행의지를 표현한 2023년 브랜드 캠페인 '그린픽쳐(Green Picture)'를 전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시리즈로 제작돼 SK이노베이션을 시작으로 사업 자회사들까지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1830, 들라크루아 作)'을 패러디해 넷제로 혁신을 주도해 가는 SK이노베이션의 의지를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인사

◆**하이투자증권** ◇신규보임 △투자금융3부장 우동일 △랩운용부장 최원준

부음

▲권재홍씨(1927년생) 별세, 서인교·윤교·석자·인숙씨 모친상, 배조웅(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씨 장모상 = 2일 오후 8시 30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 발인 5일 오전 8시

AI라는 판도라의 상자, 막을 수 있나

윤 휘 종의
잠시 쉼표

지난 1일, 세계적인 '인공지능(AI)의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명예교수가 구글에서 퇴사한다는 뉴욕타임스(NYT)의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그가 구글을 나온 이유는 "AI가 핵보다 더 무서워 더 이상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AI의 악용 시도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핵무기와 달리 AI는 비밀리에 연구하면, 그걸 밖에선 알 방법이 없다. 전 세계의 학자들이 협력해서 AI 기술을 제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에서 누구보다 딥러닝 분야를 주도하던 힌턴 교수가 그의 인생 30여년을 헌신해왔던 AI 개발을 후회한다고 털어놨지만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린 지 오래다.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기업과 정부기관들이 AI 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유발 하라리 예루살렘 히브리대 교수, 스튜어트 러셀 UC버클리대 교수 등도 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AI의 개발을 몇 개월 만이라도 늦추자'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업간 경쟁이 뜨거운 판에 어느 기업이 먼저 경쟁에서 뒤처지겠다고 선언하겠는가.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데, 어느 국가가 경쟁국에 기술선점의 자리를 넘겨주겠는가.

더군다나 AI 개발 경쟁은 미국과 중국이 자존심을 걸고 경쟁하는 분야 가운데 하나다. 중국 국무원은 이미 2017년 인공지능개발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중국의 미래경제계획의 핵심이자 일대일로 투자사업과 쌍벽을 이루는 디지털 실크로드 사업의 일부이기도 하다. 중국의 목표는 2030년 또는 그 이전까지 자신들이 AI의 이용·개발·적용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AI기술은 미국이 중국보다 10~15년을 앞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브렛 킹·리처드 페티의 '테크노소셜리즘'을 보면 AI스타트업들에 대한 미국의 벤처자본 투자 등에 국한했을 때의 얘기라고 한다. 보다 폭넓은 사회 전반을 위한 AI에서 보면 결코 미국이 앞섰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은 중국이 군사용 AI에 대한 투자가 2020년에 벌써 700억달러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미국의 펜타곤은 2020년에 약 40억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2017년 7월 중국이 이미 딥러닝 역량의 핵심 응용분야인 '데이터의 사우디아라비아(데이터가 새로운 석유라는 의미)'에서 미국을 앞질렀다고 지적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은 AI와 인류의 공존 문제를 놓고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라도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윤리적 논쟁' 같은 군소리 없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AI개발을 밀어붙이고 있다. 여기에서 반(反)중국 진영이 잠시라도 AI 개발경쟁에서 쉬어갈 경우, 세계적인 AI 주도권은 중국에게 넘어갈 것이다.

지금의 정치·외교적 상황을 보면, AI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봐야 한다. AI라는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렸고, 세계 각국이 '인류를 위한 AI 개발'을 위해 협력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AI' 개발에만 열을 올리면 AI라는 판도라의 상자는 '희망'만 남은 채 곧 뚜껑이 닫힐 것이다.

/정치경제부장 yhj@metroseoul.co.kr

28㎓, '실패한 주파수' 되지 않길

기지 수첩
채 윤 정
〈산업부〉

통신업계에서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SK텔레콤의 5G 28㎓ 주파수 할당이 취소될 지 주목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한 기지국 구축 조건을 지키지 않았고 다른 업체와 형평성을 고려해 주파수 공급이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렇게 되면 28㎓ 주파수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하나도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KT·LG유플러스 등 통신 2사에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고, SKT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할당 취소된 5G 28GHz 주파수 대역 등을 사용할 '제4 이동통신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4 이통사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힌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결국 제4 이통사 설립이 수포로 돌아가고 SKT까지 28㎓ 주파수 공급이 취소되면 28㎓ 주파수를 이용하는 이통사는 전무하게 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는 28㎓ 주파수 대역에서 정부가 요청한 3년 만에 1만 5000개 기지국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와 달리 SKT는 노력해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SKT 만이 28㎓ 주파수 시장에 남게 됐는데,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SKT는 3.7GHz 20㎒ 폭의 추가 할당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에서 확실하게 28㎓ 대역에서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은 이 대역을 포기했다 3.7GHz 20㎒ 폭의 추가 할당을 받지 못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했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SKT는 28㎓ 주파수 대역에서 사업자로 남게 될 경우, 기지국을 촘촘히 구축해야 해 수천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SKT측은 28㎓ 주파수를 지하철 5G 서비스 백홀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SKT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 28㎓ 주파수 대역에 하나의 사업자가 남지 않아도 되는 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SKT가 28㎓ 주파수 사업자가 되어도 기지국 구축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지하철 5G 서비스 백홀 활용 방안 등을 고민해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통 3사 전부 28㎓ 주파수 대역을 취소하면, 28㎓는 '실패한 주파수'라는 기록이 남게 된다. 남은 기간 동안 이를 막기 위한 대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cho@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5월 4일 (음 3월 15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건강은 재물보다 더 큰 축복. **48년생** 집에서 음식솜씨를 발휘하여 즐겁다. **60년생** 마음이 울적할 땐 슬퍼하라. **72년생** 신세졌던 사람이 고맙게 신세를 갚으러 온다. **84년생** 오늘 회의는 내 뜻대로 찬성표가 더 많을 터.

37년생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상반되게 배신한다. **49년생** 다정다감(多精多感)도 병. **61년생** 이웃사촌이 형제보다 낫다. **73년생** 상대의 단점을 캐내지 마라. **85년생** 오늘 하늘에서 떨어진 횡재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눠야 한다.

38년생 오로지 참는 것이 오늘의 불운을 이겨내는 것. **50년생** 인생에 휴식이 없이 바쁘게 돌아간다. **62년생** 성공의 기미가 보이니 밀고 나가라. **74년생** 자격지심으로 고집 피지 않도록. **86년생** 닥쳐올 재난을 미리 경계하도록.

39년생 건조하여 가려움증이 생기니 마음도 우울. **51년생**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 **63년생** 천재라도 노력이 있어야 이어진다. **75년생** 음주와 먹는 것에 유의하는 날. **87년생** 이제 시작된 사회이니 미래를 재점검하자.

40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즐겁다. **52년생** 계획을 세워 차분히 진행. **64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한계가 있다. **76년생** 배려를 하지 않으니 주변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88년생** 풍요롭기를 원하면 아직 시기가 남아 있다.

41년생 1의 숫자와 재색이 행운을. **53년생** 미(未)시에 운전 유의. **65년생** 일이 성과를 내니 명예가 높아진다. **77년생** 다툼이 일어나니 미리 자중하여 구설에 주의를. **89년생** 불확실한 미래지만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엄청나다.

42년생 여의주가 손에 들어오니 좋은 일. **54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어지니 인생사 돌고 도는 것. **66년생** 학문의 길은 다양하나 공든 탑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78년생** 이사 계획은 다음 날에. **90년생** 오후치아 건강을 점검해보자.

43년생 가족의 협조로 집안일이 잘 풀린다. **55년생** 재물 관련 일은 지장 기도를 해보는 것도. **67년생** 태양은 우리 곁에 있다. **79년생**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상책. **91년생** 앞날을 대비하는 준비성 즉 실력을 키워라.

44년생 마음은 불편해도 재물은 들어온다. **56년생** 새로운 기회와 인맥이 만들어지는 날. **68년생** 동료와의 우정이 여러모로 도움 된다. **80년생** 결혼할 사랑이 찾아오니 가슴이 벅차다. **92년생** 구슬을 꿰듯이 시작하는 시점을 잘 찾자.

45년생 반려 견은 기쁨을 같이한다. 그러니 청결하게 하자. **57년생** 줄이 길어 기다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라. **69년생** 작은 결함으로 일을 망치니 주의를. **81년생** 물이 깊어야 고기도 모이는 법. **93년생** 여자가 낀 망신살에 주의를.

46년생 불어오는 바람에 마음이 흔들린다. **58년생**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발생. **70년생** 변동이 있어도 초지일관해야. **82년생** 스스로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준다. **94년생** 언덕이 변하여 골짜기가 되듯 변하는 게 인생사인 듯.

47년생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 **59년생** 생각지 않은 초대가 있다. **71년생** 밑천이 많으니 장사도 큰 이익. **83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나 의외의 곳에서 소득이 생긴다. **95년생** 견문과 학식이 풍부해지면서 스스로 겸손해진다.

김상회의 四季

가정의 달 풍경

신록이 우거지는 5월 가정의 달이다. 일 년 중 날씨가 가장 좋은 계절이기도 하다. 5월에는 가족을 위한 날이 많은데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게 어버이날이다. 부모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길러주신 은혜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풍경은 언제 보아도 아름답다. 마음을 담은 선물도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기쁨을 가득 채운 선물이다. 사랑의 마음만 오갈 것 같은데 세태가 변하면서 씁쓸한 이야기도 들려온다. 최근 효도계약서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효도계약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맺는 계약이다. 부모는 가진 재산을 물려주고 자식은 그 대가로 봉양을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효도와 계약이라는 단어가 영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세태는 새로운 풍속을 만들어 내고 있다. 계약서에는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조치까지 담긴다고 한다. 대가족제도 붕괴와 봉양 문화의 변화가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풍속까지 만들어 낸 것이다. 효도를 강요할 수는 없다. 시대가 변하고 세태가 변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부모 자식 사이에 효도를 내용으로 계약서를 주고받는 건 어떻게 봐야할지. 부모는 자식을 키우며 자연이 세상을 품는 것처럼 자식을 품는다. 햇살 같고 비 같은 사랑이 있었기에 작고 연약한 아이들이 쑥쑥 클 수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은 잊히고 봉양을 둘러싼 마찰이 늘어난다. 먹고 살기 고달픈 현실에 부모 봉양은 큰 짐처럼 느껴질 것이다. 상황이 그렇다 해도 안타까운 일이라는 건 분명하다. 이번 가정의 달엔 효도계약서가 아니라 고마움을 담은 카네이션과 마음 담은 선물만 오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서로 조금씩 짐을 덜어주면 부모자식 간에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하는힘 문제출제: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등호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1		8	3	6		4		7
		4						
2			9				6	8
						8		6
6								4
4		5						
5	7				6			1
						6		
8		6		2	9	5		3

				1				
		4	9		3			
		1	2			3	7	
	3					4	9	
4								7
	1	9					2	
	5	7			8	9		
			7		6	1		
				2				

정답

3	7	5	9	2	1	6	4	8
2	4	6	7	8	5	3	1	9
1	8	9	6	3	4	2	7	5
9	3	7	8	1	6	5	2	4
4	1	2	5	7	3	9	8	6
6	5	8	4	9	2	1	3	7
8	6	3	1	4	9	7	5	2
5	9	4	2	6	7	8	1	3
7	2	1	3	5	8	4	6	9

3	4	7	1	2	5	8	9	6
5	8	1	6	9	7	2	4	3
2	6	9	8	4	3	7	5	1
6	2	5	4	3	8	9	1	7
7	3	8	9	5	1	6	2	4
1	9	4	2	7	6	5	3	8
4	7	3	5	8	2	1	6	9
8	1	2	3	6	9	4	7	5
9	5	6	7	1	4	3	8	2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김 승 중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8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28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MZ의 여행 방식… 기록 남기고 소통하며 경비도 벌어요”

MZ터뷰

여행 플랫폼 ‘트립비토즈’

상혁·희연·미혜

MZ터뷰 열 다섯번 째 주인공은 여행 플랫폼 트립비토즈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상혁님, 서비스플랫폼 개발을 담당하는 희연님, 호텔 세일즈를 맡고 있는 미혜님입니다.

코로나19에 막혔던 하늘길이 열리고 해외여행 수요자들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외 수많은 여행 관련 플랫폼기업들은 코로나19이전과 이후가 너무 다르다고 입모아 말합니다. 과거에는 숙박, 비행기 등 여행에 필요한 요소만 찾는 사용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독특한 국내숙박, 나만 알고싶은 해외 여행지, 현지에서 친구만들기 등 새로운 서비스들을 찾는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처럼 여행 관련 트랜드가 더 빠르게 변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여행 플랫폼을 출시한 기업이 있습니다. ‘트립비토즈’입니다.

(왼쪽부터)정지하 트립비토즈 대표, 김상혁 그로스마케팅 팀장, 원미혜 마케팅팀, (오른쪽 아래)주희연 테크팀이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여행 플랫폼에 SNS 기능 접목, 숏폼 영상 기반 OTA
주 연령대 MZ세대로 업로드 영상 수 38만 개 넘어가
사용자 간 여행 경험 연결 … 좋아요·댓글로 랭킹 매겨
랭커들에겐 숙소 예약 시 사용 가능한 트림캐시 지급

지난 2017년 시작한 트립비토즈는 여행 플랫폼에 SNS의 기능을 접목한 사용자 생성 동영상 기반의 OTA(Online Travel Agency)입니다. 트립비토즈는 사용자가 직접 숏폼 영상을 본인의 계정에 업로드해 플랫폼 안에서 사용자 간의 여행 경험을 연결합니다 또 다른 사용자의 반응을 얻을 시 보상을 지급해 다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T2E(Travel to Earn, 여행하면서 돈 벌 수 있는 서비스)’를 전 세계에서 처음 선보입니다. 거래액의 일부를 사용자에게 상금으로 돌려주는 T2E 서비스를 운영하는 OTA는 현재 국내 여행 플랫폼 중 트립비토즈가 유일합니다.

트립비토즈의 앞선 전략에 사용자들은 열광합니다. 단순히 여행이라는 행위를 떠나 여행지와 호텔을 직접 소개하는 등 사용자들은 트립비토즈 안에서 스스로 마케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트립비토즈가 여행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호텔 예약(커머스)이 가능한 여행 커뮤니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주 사용연령이 MZ세대가 되면서 마케터의 성향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지난해 말 트립비토즈를 이용해 여행을 준비한 이용자들이 업로드한 영상 수가 38만 개 이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트립비토즈는 앞으로의 사용자들도 트립비토즈 안에서 여행의 모든것을 제공받으면서 활발한 마케터 활동을 통한 소통에 니즈가 커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는 트립비토즈의 가장 큰 과제겠죠.

이 같은 과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는 세 직원이 있습니다. 고인물이지만 아닌척 하는 상혁님과 원효대사 해골물 미혜님, 삼행시 천재 희연님이 입니다.

세 사람의 입사연차는 제각각이었지만 모두 ‘중꺽마’ 그 자체 였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트립비토즈의 문화는 존중과 존경에서 발생된다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아래는 세사람과의 즉문즉답 입니다.

—트립비토즈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나

상혁: 그로스마케팅팀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과 고객관계관리(CRM) 및 페이드 마케팅 채널의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희연: 서비스 플랫폼 개발팀에서 벤엔드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트립비토즈의 앱과 웹 서버사이드 개발이 주 역할 입니다.

미혜: 마켓 매니저 팀에서 호텔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트립비토즈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플랫폼과 차별성이 있나

상혁: 트립비토즈는 사용자 측면에서 여러채널을 비교하지 않아도 한 곳에서 여행의 모든 것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여행 수요를 늘릴 뿐만 아니라 호텔, 펜션 등 다양한 파트너사와의 협업도 강화할 수 있죠.

미혜: 또 다른 점은 랭킹 서비스 입니다. 사용자들은 여행지와 숙소의 영상을 올리고 ‘좋아요’, ‘댓글’ 등의 반응을 받아 랭킹 포인트를 적립하여 순위를 올릴 수 있죠. 각 지역과 숙소의 랭킹 100위 내에 든 사용자(랭커)들은 해당 장소 거래액의 일부를 트립캐시로 차등 지급받게 되며, 트립캐시는 트립비토즈에서 숙소 예약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1등은 798만 캐시를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희연: 최근 앱에 채팅·영문 서비스 기능 등을 추가하며 사용성 강화를 위한 웹 서비스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숙소 체크인 7일 전부터 예약한 숙소가 있는 지역의 채팅방에 자동으로 입장 되고 체크아웃 당일 자정 이후에는 자동으로 채팅방이 종료되는 서비스 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직접 여행지를 소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나만의 여행기록을 남길 수 있는 여권 및 여행 기록 기능을 신설했습니다. 사용자들은 언제든 시기에 맞춰 여행지를 영상과 텍스트를 통해 소개할 수 있게됐습니다. 또 영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어 글로벌 이용자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 회사와 다른점이 있나

상혁: 탄력적인 출퇴근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희연: 문서를 위한 문서가 필요없습니다. 빠른 의사 결정과 추진력으로 일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은 곧 사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미혜: 호텔에서 세일즈를 할때는 ‘호텔을 어떻게 잘 팔지’라고 생각했다면 트립비토즈에서는 ‘어떻게 전국의 호텔을 사용자들에게 소개해줄까’라는 식으로 생각이 확장된 것을 느낍니다. 이는 내부에서 수많은 소통을 통해 도출된 포인트입니다.

주희연 김상혁 원미혜

—가장 좋아하는 트립비토즈의 문화는

희연: 생일자의 이름을 삼행시로 지어 축하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신선하고 모두가 즐기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창작한 직원에게는 생일자와 함께 선물을 주곤합니다. 제가 항상 거의 1등을 차지하고 있죠.

상혁: 1:1토크를 언제나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프로젝트를 위해 서로의 스케줄을 확인해 보고 자유롭게 해당 1:1토크를 신청합니다. 대표님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혜: 어버이날에 회사에서 깜짝 이벤트로 부모님께 사진, 트립캐시, 손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뿌듯한 나머지 부모님께는 “나만 선택됐다”고 거짓말 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인 회사 문화와 개선할 점은

상혁: 각 팀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인 소통의 문화가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캐주얼 합니다.

희연: 서로가 원하는 방향을 설정해 놓고 소통을 통해 개선하고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빠르게 목표에 도달해버려서 일이 너무 많은게….

미혜: 큰그림을 함께 그려나가는 조직이 되길 희망합니다. 서로 바쁘다 보니 우선순위의 가치가 흐려질 수 있지만 규모가 커질 수록 존중하고 존경한다면 충분히 밸런스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직급과 상관없이 모두의 발언권을 존중해 준다는 점도 저를 성장 시킵니다.

—여행 플랫폼 + SNS의 결합 이색적인데, 트랜드가 또 변할까요

상혁: 여행이 끝난 후 삭제되는 앱이 아닌 다음 여행을 계획하기 전까지 SNS처럼 꾸준히 살펴볼 앱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행과 공유 모두 사용자들의 선택이다. 이같은 선택을 존중해주는 플랫폼이 있다면 이용하지 않을 이유 무엇?

희연: 최근 여행 톡이 추가되면서 영상과 사진을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픈채팅방 처럼 여행을 주제로 한 사용자들 간 더 다양한 커뮤니티가 형성 될 것같습니다.

미혜: 아무도 해보지 않은 분야라 아무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해당 분야를 유기적으로 잘 융화시키는게 우리의 과제 라고 생각합니다.

—월급은

미혜: 사이버머니다. 조카의 육아용품을 사는데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희연: 쉬게 해주는 존재. 여행 비용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상혁: 스치는 게 월급. 취미 없습니다. (최근 결혼 준비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자 몸도 마음도 메말랐다는 후문) 트립비토즈의 대표적인 고인물로 아닌 척 하느라 힘들지만, 요즘 덕질은 ‘일’이랍니다.

—최근에 보지 못한 프로 애사심러들인데(약속 지킵니다), 회사(정지하 대표)원하는 게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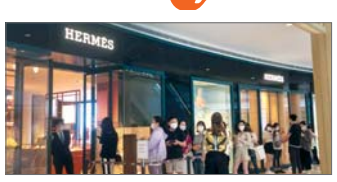
상혁: 망설임 없이 없습니다. (라고 전해달라는 후문) 하지만 굳이 말하자면 월차, 유급휴가 같은 부분이 확대되길….

어느 누군가: 업무상 통화를 많이 하는데 회사에서 통화하는게 너무 힘들다. 통화 부스가 있으면 업무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군가2: 여행을 지원해주는 캐시와 생일자 캐시 금액이 좀 더 커지면 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더욱 잘 살펴 볼 수 있을 것같습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판다가 다시 움직인다” 엔데믹 시대 中 명품 소비 급증 /뉴시스

▲韓·호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기후변화 공동 대응

▲美바이든 다음주 선거자금 모금…대선 준비 본격화하나?

▲日기시다 “개헌 미룰 수 없는 과제”… 국민투표 조기 실시할 듯

▲폴 크루그먼, “달러 위기론 무시해도 좋다” /뉴시스

▲구글 딥마인드 CEO “사람같은 일반 인공지능 곧 개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5182호 2023년 5월 4일 목요일

e커머스 차량용품 넘어 신형車 판매까지 L1

화장품업 1분기 영업익 반토막 L2

놀거리 늘리고, 건강 지키고… '어린이 행복도시' 만든다

오세훈,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 발표
놀이·건강사업에 4년간 4146억 투자

초등생 모집해 '정책 참여단' 운영
공원·광장 곳곳 놀이 체험 프로그램
그림심리상담 활용, 아동학대 예방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전 시청에서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가 '어린이 행복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스마트폰 없는 힐링캠프', '야외 광장 낙서 한마당' 같은 놀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은 서울시내 공공 문화시설에 먼저 입장할 수 있게 하고, 아이들이 디지털 자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오세훈 시장은 어린이날을 앞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오 시장은 "편리한 디지털 환경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부족함 없이 자라는 것 같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면서 "OECD 국가 가운데 한국 어린이의 행복 수준이 가장 낮고, 놀이 시간은 급속히 감소했으며,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우울증 또한 많이 발생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여건 속에서 서울의 어린이들이 보다 행복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를 연구해왔다"며 "어린이와 부모, 정책 당사자의 목소리와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전국 최초로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6년까지 시는 ▲참여·존중 ▲신나는 놀거리 ▲꿈·미래 ▲안전·돌봄 ▲심리·건강, 5대 분야 20개 사업에 4146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시는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어린이 정책참여단'을 운영한다. 시는 매년 초등학생 100명을 모집해 존중·놀이·건강·안전·미래·환경 6개 분과별 정책 제안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참여단이 낸 우수 아이디어는 검토를 거쳐 서울시 정책으로 만들기로 했다.

어린이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시는 서울시 박물관·미술관·공연장 같은 문화시설과 잠실종합운동장 등 시립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어린이 동반 가족 우선 입장'을 추진한다.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에도 힘쓴다. 시는 공원, 광장 등 서울시 곳곳에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놀자! 놀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자치구 공모 사업을 통해 시는 어린이들이 뛰어놀며 사회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프로그램 참여 인원은 내년 5만명에서 2026년 30만명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적성이 궁금한 초등학생과 부모들을 위해 시는 '우리 아이 미래 진단 원스톱 컨설팅'을 시작한다. 미래 역량과 진로를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들어 온오프라인에서 전문가와 맞춤형 상담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내용이다.

아동학대 예방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시는 매년 초등학생 1~3학년 1000명을 대상으로 그림을 활용한 심리상담을 진행, 가족 문제나 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사례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시는 25개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족참여교실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절제하도록 돕고, 텃밭 재배, 역사기행 등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 과도한 디지털 자극에서 벗어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소비자 피해 품목, 미리 조심하세요"

57만건 피해 상담 빅데이터 분석
월별 피해 품목·유형 예보제 시행

서울시가 최근 4년(2019년~2022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7만건의 소비자 피해 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예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소비자 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는 특정 품목이나 판매처 관련 피해 급증시 '피해주의보'를 발령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보제'는 특정 시기에 동일하게 증가하는 피해 품목과 유형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려 피해 자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가 선정한 월별 예보 품목은 ▲(1월)겨울의류 ▲(2월)포장이사 ▲(3월)사설강습 ▲(4월)건강식품 ▲(5월)야외활동복 ▲(6월)체력단련회원권 ▲(7월)냉방용품 ▲(8월)숙박·여행 ▲(9월)택배 물류 ▲(10월)난방용품 ▲(11월)블랙프라이데이 행사상품 ▲(12월)인터넷 교육서비스이다.

시는 이달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의류 품목에 대한 교환·청약 철회 거부, 제품 불량, 배송 지연 관련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름휴가를 앞둔 6월에는 체력 단련센터 회원권 계약해지 거부, 과도한 위약금 부과와 같은 피해가 많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또 시는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는 10월에는 전기장판과 온수 매트를 포함 난방용품의 제품 불량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보 품목은 서울시가 보유한 홍보매체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물건과 서비스 구매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좌이체보다는 일정 조건에서 보상이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면서 "특히 현금결제만 가능한 판매처는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현정 기자

교육부, 기초과학 분야 연구에 160억 지원

8개 대학 선정, '램프 사업' 도입

교육부는 대학이 기초과학 분야의 새로운 지식 창출 중심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램프 사업 기본계획'을 3일 발표했다.

램프 사업은 기존 과제 중심의 연구지원에서 벗어나 대학이 연구소를 관리·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학과·전공의 신진 연구인력이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지원규모는 8개 대학, 지원예산은 총 160억원이며 선정 시 5년(3+2년)간 지원한다. 대학은 기초과학 10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해당 분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램프 사업은 대학의 '연구소 관리·지원 체계 구축'을 전제한다. 기존 연구개발사업(R&D)은 대부분 개별 과제(project)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램프 사업은 대학에 학내 연구소에 대한 현황 조사·공개, 평가·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소 관리·지원 체계'를 우선적으로 갖추도록 요구한다. 연구인력 선발, 시설·장비 확충, 연구과제 확정 등을 직접 총괄하도록 해 대학이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를 지원하도록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인천시, 무주택 청년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최대 4년간 연 2% 이자 지원상품 출시

인천시가 청년들을 위해 최대 4년간, 연 2%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만 19세~만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빌려주고, 최대 4년(기본 2년)까지 대출금 이자 연 2%를 지원하는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 대출자는 시에서 지원하는 이자 연 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신청자 모집기간은 5월 31일까지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예정인 만 19세~만 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로서, 연소득은 6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주거급여수급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되며, 공무원 또는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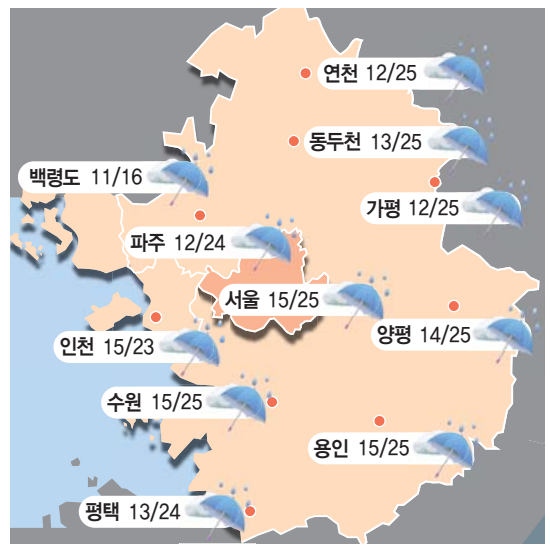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5:34 | 해짐 / 19:24

5월 4일 (木)
음력 : 3월 15일

수도권 날씨
15~25℃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정몽규 축구협회장 "소통이 가장 중요…환골탈태할 것"
▲김하성, 신시내티전 1안타 2볼넷…타율 0.228 /사진 뉴시스

▲류현진, 어린이날 맞아 소아암 환자 치료비 1억원 쾌척
▲줄부상까지…엎친 데 덮친 전북, '리그 11위' 작년 떠올리나

▲점점 멀어지는 메시와 PSG…출전정지 징계까지
▲레이커스, 골든스테이트와 PO 2라운드서 먼저 웃었다 /사진 뉴시스

SAMSUNG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5월 어린이날 선물하기 좋은 건 갤럭시 너지

함께 할수록 힘이 커지는
갤럭시너지
Galaxy Buds2 Pro

우리 아이 첫 프리미엄 무선 이어폰
고품질 사운드 | 편안한 착용감

소중한 마음 더 특별하게
삼성닷컴에서 선물하세요

*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 24bit Hi-fi 사운드는 갤럭시 버즈2 프로와 연결된 One UI 4.0 이상 갤럭시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서 가능합니다.
* 24bit 오디오 지원은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